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48호 【루계 제25757호】 주체106(2017)년 9월 5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사회주의교육테제의 기치높이 주체교육의 찬란한 전성기를 펼쳐나가자

오늘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40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속에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된바람이 세차게 일고있는 시기에 이날을 맞는 우리 인민은 지금 주체교육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한평생 교육중시의 성스러운 력사를 수놓아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조국과 민족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 숭고한 후대사랑이 응축되어있는 사회주의교육건설의 대백과전서이다. 여기에는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와 교육사업에서 전지하여야 할 원칙,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교육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져있다. 사회주의교육테제가 발표됨으로써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혁명인재육성의 근본지침이 마련되고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교육건설의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며 활력있게 전진하여올수 있었다. 우리가 복잡하고 첨예한 환경속에서도 강력한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자랑찬 승리를 떨쳐올수 있은것은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교육테제를 철저히 구현해온 결과이다.

주체의 사회주의교육발전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는 불멸의 대강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영광이고 긍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사업은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입니다.》

주체교육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독창적인 교육사상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교육건설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하며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온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교육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교육을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항일의 불길속에서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혁명적교육전통을 마련하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년대들마다 교육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오시였다. 주체66(1977)년 9월 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것은 주체교육발전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교육부문에 대한 령도는 사회주의교육테제의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여있다.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을 한결같이 높추면 조국의 전진이 열걸음 떠진다고 하시며 온 나라에 정연한 주체교육체계를 확립해주시고 그처럼 엄혹했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무료교육, 의무교육이 중단없이 실시되도록 하신분이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대학교육과 중등일반교육을 개선해나가도록 이끄신 령도의 자욱은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삼지연군 무봉고급중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대학들과 학교들에 력력히 새겨져있다.

오늘 우리의 주체교육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자기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교육사상과 령도업적을 만년재보로 빛내이며 사회주의교육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교육부문에서 사회주의교육테제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교육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관철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 우리 식의 독특한 원격교육체계와 온 나라를 뒤덮은 과학기술보급망, 교육학적요구가 완벽하게 실현된 멋있는교사들과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들에는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주체혁명의 만년토대를 공고히 하고 부강조국건설에서 비약을 이룩해나가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웅지가 깃들어있다. 21세기 사회주의교육강국, 인재강국의 명마루에로 독륜처 내달리고있는 우리 조국의 벅찬 현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육사상리론을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도록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사회주의교육테제의 기치밑에 전진해온 지난 40년은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떠메고나갈 참다운 혁명가, 유능한 혁명인재의 대부대가 자라난 긍지높은 력사이다.

교육사업은 우리 혁명의 대를 이어주고 나라의 발전을 떠밀어주는 중요한 사업이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풍부한 지식과 높은 창조적능력, 고상한 도덕풍모와 건장한 체력을 지닌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참다운 혁명가, 혁명인재들을 키우는데 사회주의교육의 근본목적이 있다.

우리의 모든 교육기관들에서는 사회주의교육테제가 밝혀준대로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을 혁명적수령관과 불타는 애국심, 필승의 신념과 투철한 반제계급의식, 고결한 도덕의리심을 지닌 혁명가들로 튼튼히 키워왔다.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건설의 힘있는 담당자, 과학기술의 주인으로 키우기 위한 교육사업을 끊임없이 혁신하여온 나날에 높은 사고능력과 연구능력, 응용능력을 갖춘 창조형의 인재들이 수많이 배출되였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신념화하고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주체형의 혁명가, 혁명인재들이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들을 억척같이 지켜나감으로써 우리 조국이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으로 존엄떨치고 이 땅에서는 《3.18혁명》,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와 같은 특대사변들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경제문화건설에서도 눈부신 혁신과 비약이 이룩되게 되였다. 특히 우리의 새 세대들이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튼튼히 준비된것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큰 성과이다.

해방후 인재 한사람한사람이 그토록 귀했던 우리 조국이 오늘은 강위력한 혁명인재대군에 의거하여 무궁무진한 발전잠재력을 총폭발시켜나가고있다. 세대는 바뀌였어도 백두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려는 우리 혁명대오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며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사상문화적침투책동도, 극악한 경제기술적봉쇄도 혁명인재대군이 있는 주체조선의 도도한 전진을 절대로 가로막을수 없다.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칠 투철한 각오를 지닌 혁명가들의 대부대를 육성해내는 주체의 사회주의교육이 있기에 백두산대국의 전도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사회주의교육테제의 기치밑에 전진해온 지난 40년은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여온 창조와 변혁의 력사이다.

사회주의교육테제발표후 각급 학교들이 늘어나고 초등 및 중등교육체계와 고등교육체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가 더욱 정연하게 세워졌으며 수재교육체계까지 확립되여 우리 나라에는 전체 인민이 학습할수 있는 조건이 그윽히 마련되게 되였다. 교육에서 주체가 확고히 서고 당정책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내용과 형식, 방법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였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가정교육이 유기적으로 밀접히 결합되고 나라의 제일 좋은 곳들에 소년궁전과 야영소를 비롯한 과외교육교양기지들이 훌륭히 일떠섰다. 외진 섬마을과 산골마을의 몇명의 학생들을 위해 학교가 건설되고 교원이 찾아가며 통학길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있는것은 사회주의교육테제가 철저히 관철되고있는 우리 조국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긍지높은 현실이다.

교육사업을 량심과 헌신, 애국으로 여기고 후대들을 앞날의 역군으로 키우는데서 삶의 희열을 찾는 우리의 교육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영상을 빛내이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교원들의 정치사상적풍모와 자질향상에서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고 10월8일모범교수자, 새교수방법등록증소유자대렬이 장성강화되여 교육사업에서 혁명적앙양을 이룩할수 있는 근본담보가 마련되였다.

직업적혁명가, 당의 참된 교육전사들이 조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영예롭고 보람찬 초소에 섰다는 높은 자각과 숭고한 후대관을 지니고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변함없는 한모습으로 교단을 지켜가기에 우리의 새 세대들이 대바르고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는것이다.

당의 령도밑에 교육사업이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였다. 원쑤들의 발악적책동으로 하여 나라의 경제형편은 어려웠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를 전진하는 사회주의의 힘찬 동음으로 어기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교육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최근년간 평양제4소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교육단위들의 면모가 일신되고있는 벅찬 현실은 드세찬 교육지원열풍속에 더 높이 비약할 주체교육의 래일을 확신하게 하고있다.

참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가 발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40년의 력사는 절세위인들의 교육중시사상과 령도에 의하여 주체교육건설에서 눈부신 발전이 이룩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된 자랑찬 행로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발표 4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과학교육의 해로 정하였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육중시사상과 불멸의 령도업적을 전절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며 나라의 교육발전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있다.

우리는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교육테제의 기치높이 우리 나라를 21세기 사회주의교육강국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교육사상과 령도업적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우리 인민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기창한 실천투쟁속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의 비상한 전인력과 생활력을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교육자들,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육사상과 령도업적을 만년재보로 빛내여나가는 길에 주체교육의 창창한 미래가 있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교육부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교육사상과 방침,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와 원칙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

교육부문에서 우리 식의 대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오늘의 교육혁명은 최단기간에 교육이 발전된 나라들의 수준을 압도하고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이다. 우리는 주체적립장과 안목에서 사회주의교육의 본태를 확고히 고수하면서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와 좋은 경험들을 우리 현실에 맞게 받아들이고 우리 식으로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교육에서 당당히 세계를 앞서나가야 한다.

교육체계를 더욱 완비해나가는것은 새 세기 교육발전을 위한 기틀을 바로세우는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이다.

올해에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새로운 교종인 기술고급중학교들이 수많이 태어났다. 중등교육부문에서는 기술고급중학교들을 지역별특성과 기술인재수요에 따라 계속 확대해나가며 과외교육교양기지들을 통한 교육교양을 학교교육과 밀접히 결합시킨 우리 식의 독특한 과외교육교양체계로 더욱 개선강화해나가야 한다. 전국적범위에서 현직교원들을 위한 원격재교육체계를 빠른 기간에 완성하고 교원양성부문 대학들의 원격통신교육체계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고등교육부문에서는 키워내야 할 인재의 류형과 양성목표를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정하고 그에 맞게 교육체계를 완비하여야 한다. 각급 종합대학들에서는 학술중심, 정보중심, 자료봉사중심, 원격교육중심으로서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교육의 일원화를 적극적으로 다그쳐나가야 한다.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부단히 정비해나감으로써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을 적극 추동해나가야 한다.

초등 및 중등교육의 내용과 형식, 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것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의 란란대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는 과학연구기관들과 과학기술보급실들을 잘 꾸려놓는다고 하여 실현되는것이 아니다. 초등 및 중등교육의 질을 높여야 사람들이 일생동안 공부를 계속할수 있는 기초가 튼튼히 다져지고 고등교육의 질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수 있다.

초등 및 중등교육을 원리화하는 원칙에서 교과서, 교수참고서들을 집필하며 전학, 참관, 관찰, 체험 등을 수업에 적극 받아들이는 다양한 교육형식을 창조하고 일반화하여야 한다. 새로운 교수과정과 교수수단, 수법들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여러가지 교수형태들을 잘 결합시키면서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야 한다. 고급중학교들에서는 한가지 이상의 현대적기술을 소유하기 위해 학생들이 선택한 교육과정안에 따르는 교육을 실속있게 진행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국가적으로 교육부문을 최우선시하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

교육사업은 국가중대사이며 민족의 장래와 관련되는 전략적인 문제이다. 교육과 관련한 사업에서 만족이란 있을수 없으며 그 누구도 례외로 될수 없다.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건물들을 보기 좋게, 밝고 깨끗하게 꾸림뿐이니라 교육학적측면에서 하나하나 따져가며 세부적으로 심화시켜나가야 할 어려운 사업이다. 모든 일군들은 다기능화, 정보화된 교실꾸리기를 포함한 교육기관 건설에서 교육학적요구를 철저히 준수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돌려야 한다. 콤퓨터에 의한 원격시험과 일제시험을 원만히 치르는데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정보화, 현대화를 한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자체의 힘으로 학교를 꾸려나가고있는 숙천군 은덕소학교와 창동기술고급중학교, 봉천군 화촌고급중학교 일군들과 교육자들의 사업경험은 자강력을 높이 발휘할 때 교육사업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얼마든지 없앨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교육부문 일군들과 교육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선교구역 선교초급중학교와 룡곡고급중학교, 서성구역 건재초급중학교를 비롯한 본보기단위들을 따라배우고 따라앞서기 위한 경쟁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의 직접적담당자는 교원들이다.

교육부문에서는 실력이 뛰여난 학생들을 사범대학, 교원대학들에 우선적으로 보내며 다른 대학의 우수한 졸업생들도 초등 및 중등교육부문에 많이들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교원들은 조국의 미래를 가꾸어나가는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될 각오를 안고 자질향상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교원들의 품성이자 학생들의 품성이라는것을 항상 명심하고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갖춘 참된 스승, 훌륭한 교양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인재강국이자 사회주의강국이라는 확고한 견해와 관점을 가지고 교육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며 교육자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 교육부문 당조직들에서는 교수교양에 중심을 두고 당사업을 진행하며 당사업의 성과가 교수교양사업, 인재양성의 성과로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

모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교육테제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교육강국, 인재강국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이 답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 정 은 동 지

나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동지께서 나의 생일 80돐에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와 축원이 담긴 꽃바구니와 축전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이것은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당, 두 국가,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동지적이고 형제적인 단결의 전통의 과시로 됩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숭고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분 냥 워 라 찓

2017년 8월 21일 비엔티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인터네트에 게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를 선군절에 즈음하여 로씨야의 알파베차찌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8월 24일 출판사에서 진행되였다.

출판사 부사장은 선군절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작을 발행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오늘 조선에서는 민족유산보호사업이 계승성있게 발전하고있다.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의 전문을 선군절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가 8월 21일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렸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7돐과 청년절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청년들은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되자》의 전문을 민주콩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8월 16일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렸다.

【조선중앙통신】

조국의 만년대계를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혁명령도의 전기간 교육사업과 관련한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66(1977)년 9월 5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40돐을 맞으며 우리 인민은 주체교육발전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교육사상리론은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와 원칙, 교육내용과 방법을 뚜렷이 밝혀주는 교육대강이며 오늘도 래일도 변함없이 높이 틀고나가야 할 사회주의교육건설의 지도적지침입니다.》

항일혁명투쟁의 첫 시기에 오가자의 삼성학교와 카륜의 진명학교, 고유수의 삼광학교에서 무료교육의 첫 종소리가 높이 울리도록 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조선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민족인재를 자체의 힘으로 키워내실 구상을 안으시고 주체34(1945)년 11월 3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종합대학을 창설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대동군내 중학교설립관계 일군 및 교원들과 한 담화》, 《창덕학교 교원들과 한 담화》, 《새 조선의 믿음직한 기술인재가 되라》, 《교원대학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학생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나라의 역군으로 육성하며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민족기술간부들을 키울데 대한 문제 등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준엄했던 조국해방전쟁시기인 주체39(1950)년 7월 26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교육성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 《교육사업을 전시조건에 맞게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에서 학교들에서 전시조건에 맞게 교수를 보다 전투적으로 하면서도 그 질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 문제, 해방된 공화국남반부지역에 민주주의적교육제도를 세울데 대한 문제 등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그로부터 몇달후 《교육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에서는 인민군대에 복무중이거나 정치공작대로 활동하던 대학교원들을 모두 대학에 소환하여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도록 하시였으며 대학들에서 전시환경에 맞게 과정안과 교수요강, 강의안을 잘 작성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1960년대에는 《기술인재양성사업을 더 잘할데 대하여》, 《고등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도처에서 요구하는 기술자문제를 푸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 고등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데 대한 문제 등에 대하여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1970년대는 우리 나라 교육건설력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진 뜻깊은 년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앞당겨오신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주체66(1977)년 9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전원회의에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였다.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이고도 완벽한 해답을 준 이 로작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지닌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사회주의교육강령이며 주체의 교육사상과 리론, 방법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되고 집대성된 대백과전서적인 교육총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교육중시사상과 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시고 우리 혁명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교육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육사업을 개선하여 유능한 민족간부를 키워내자》,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서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자》를 비롯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 학생들을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맞게 교육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육혁명을 일으켜 주체교육발전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시기 위하여 주체73(1984)년 7월 22일 제9차 전국교육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보내주시였다.

이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자주시대 인간육성의 가장 옳바른 길을 밝힌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대강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5(1996)년 10월 1일 김일성종합대학창립 50돐에 즈음하여 대학교직원, 학생들에게 력사적서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학교육을 강화할데 대하여》를 보내주시였다.

이 뜻깊은 서한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대학교육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체계화한 기념비적문헌으로, 대학생들을 선군위업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가는데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새 세기에도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찾고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책공업종합대학은 나라의 위력한 과학기술인재양성기지이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우리 나라 과학기술인재양성의 최고전당이며 정보산업혁명의 개척자이다》를 발표하시여 정보산업시대 부강조국건설을 떠메고나갈 과학기술인재양성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오늘 우리의 주체교육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비약하고있다.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들로 주체교육발전을 위한 풍부한 보물고를 마련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업적은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를 받는 주체교육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할것이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4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40돐기념보고회가 4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동지와 교육부문, 판게부문 일군들, 평양시안의 대학, 각급 학교교원, 연구사들, 십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겸 보통교육상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66(1977)년 9월 5일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리정표를 마련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키우는 사업이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와 사회주의교육사업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들, 사회주의교육의 내용과 방법,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와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와 국가적보장, 사회적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교육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리론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사회주의교육의 특성에 맞게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높은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소유한 혁명인재로 키우고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주체로 준비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로작이 발표된 이후 지난 40년간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탁월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교육테제에서 제시된 교육건설사상과 리론들을 빛나게 구현하여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킨 긍지높은 나날이였다고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교육부문 일군들과 교원들, 청소년학생들속에 계시면서 나라의 교육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를 바치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혁명생애의 전기간 전국의 소학교로부터 중학교와 대학들, 섬마을과 산간벽지의 분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육기관들을 찾고 또 찾으시며 교육발전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주체교육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투쟁을 헌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혁명의 년대기들마다에 사회주의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가 있어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킬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육강국건설사상과 업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주체교육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시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중대조치를 취해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헌명하게 이끄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나라의 인재육성사업에서는 혁명적변혁이 이룩되고 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지난 기간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사회주의교육테제와 새 세기 교육혁명사상의 요구에 맞게 꾸어처주는 교수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교육설비와 교육조건들의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 조국이 첨단과학기술의 어려분야에서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고 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비약적성과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하고 있는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불멸의 업적, 교육중시, 인재중시정책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오늘 우리앞에는 당의 새 세기 교육혁명사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우리 나라를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사회주의교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워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모든 교육일군들과 교육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을 실속있게 벌려 모든 학생들을 튼튼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지닌 사상과 신념의 강자, 열렬한 애국자, 계급의 전위투사, 고상한 도덕의 체현자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새 세기 교육혁명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형식, 방법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빠른 기간에 나라의 교육수준을 세계적높이에 확고히 올려세울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교원들이 자질향상열풍, 실력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모두가 모범교수자가 되고 학생들과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교육자, 참된 스승이 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교무행정사업을 개선하고 현대적인 실험실습설비들과 기재들을 적극 개발하며 교과서, 참고서들을 질적으로 더 많이 만들어낼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이 제시한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모든 근로자들이 과학기술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교육사업은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전략적인 문제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교육사업을 우선적으로 도와주고 적극 후원하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주체교육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며 사회주의교육강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후대교육사업을 나라의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선군으로 꽃피우신 조국의 미래

온 나라 천만군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따라 랑명한 미래를 향하여 질풍노도처 내달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발표 4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주체의 사회주의교육건설사에 새겨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교육중시사상과 령도업적은 강성할 내 조국의 만년초석으로, 고귀한 재보로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육을 중시하고 교육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나라를 발전시키는데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원칙입니다.》

주체66(1977)년 9월 5일 불멸의 교육강령인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가 발표되던 력사의 그날이 뜨겁게 되새겨진다.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교육강령을 마련하는것은 당시 시대와 혁명앞에 나선 초미의 문제였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지 반세기이상의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사회주의교육건설의 옳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환히 꿰뚫어보시고 교육을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내세우시였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교육사업을 떠나서는 사회적진보도 민족적번영도 이룩할수 없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지론이였다.

또한 우리 혁명이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사상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다그치고 기술혁명을 적극 추동함으로써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앞당길것을 요구하고있었다.

사회주의교육테제, 그것은 혁명활동의 전기간 교육사업을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제일중대사로 여기시고 헌명하게 령도하여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만이 내놓을수 있는 불멸의 교육대강이였다.

돌이켜보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우리 당의 혁명적교육전통을 마련해주시고 해방후 새 조국건설의 그림림 바쁘신 속에서도 혁명인재육성사업을 전망성있게 밀고나가기 위해 김일성종합대학을 창설하시였으며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명철한 해답을 주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전쟁의 준엄한 나날에도 교육사업이 중단없이 진행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전선에서 싸우던 대학생들과 교원들을 소환하는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신 우리 수령님.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의 나날 온 나라에 학교부터 수많이 일떠세우도록 하시고 전반적인 초등의무교육제와 중등의무교육제를 련이어 실시하는 획기적조치를 취해주시였으며 교육사업에 전당적, 전국가적힘을 넣도록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업적은 또 얼마나 위대한것인가.

우리 수령님께서 사회주의교육테제를 집필하시기 위해 얼마나 크나큰 사색과 심혈을 기울이시였는가를 전해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주체66(1977)년 8월 21일 교육지도일군들을 만나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제 인차 교육사업과 관련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하였는데 그 준비사업을 잘해야 하겠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전원회의에서 중요하게 사회주의교육테제를 발표하겠다고, 몇년동안 품을 넣어 연구하여 거의 완성하였다고 말씀에 넘치신 어조로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은 절세위인의 모습을 우러르며 끓어오르는 격정에 목이 딱 메였다.

그로부터 얼마후인 9월 5일,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전원회의에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였다.

사회주의교육테제에는 사회주의교육의 목적과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와 교육사업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들 그리고 사회주의교육의 내용과 방법,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와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와 국가적보장 및 사회적지원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지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육성의 길, 사회주의교육의 진로를 가장 정확히 밝혀주는 주체교육의 대강을 마련해주신것은 자주시대 교육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주체교육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손길에 떠받들려 우리 나라는 전체 인민이 공부하는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로 세인의 경탄을 자아냈다.

참으로 만년대계의 교육사업을 자그마한 탈선도 없이 곧바른 발전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우리 수령님은 천리혜안의 예지를 지니신 탁월한 정치가이시였으며 온 나라 인민과 학생들의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위대한 계승의 력사가 이 땅우에 줄기차게 흘러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여기에 조국번영의 지름길이 있다는것을 깊이 통찰하시고 전당, 전국, 전민을 교육테제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시였다.

주체73(1984)년 7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라는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발표하신것은 온 나라에 교육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고 교육테제관철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력사적계기로 되였다.

한푼의 자금이 그처럼 귀하던 고난의 시기에도 국가의 교육시책비를 해마다 늘이며 사랑의 봄우유차가 하루도 중단없이 달리도록 사랑의 조치도 취해주시고 수많은 교육단위들을 찾아 현지지도의 길을 걸고걸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격정은 그 얼마나 컸던가.

후대교육사업은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대사인것만큼 억만금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간곡하게 가르쳐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손길아래 내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배움의 글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졌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육중시, 후대사랑의 숭고한 뜻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 땅우에 더욱 찬란한 현실로 꽃펴나고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해에 당과 국가가 인민을 위해 베푼 가장 큰 시책이 과연 무엇이였던가.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였다.

우리 원수님의 가슴속에는 후대교육사업이 언제나 나라의 제일중대사로 소중히 자리잡고있었다.

주체교육발전에 쌓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령도업적을 우리 어떻게 여기에 다 전할수 있으랴.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일류급대학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교육자들에게 현대적인 실험실들을 안겨주신 웅심깊은 사랑, 평양건축종합대학에서는 앞으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전초병들을 많이 키워내야 한다고 하시며 자신께서 명예총장이 되여 대학사업을 적극 밀어주겠다고 하신 크나큰 믿음, 평양중등학원과 평양초등학원을 중등 및 초등교육환경의 본보기, 표준으로 꾸려주신 친어버이의 손길, 평양카방공장과 민들레학습장공장을 일떠세워주시여 카방목포와 학습장들이 쏟아져나오는 희한한 새 풍경을 펼쳐주신 다심한 은정, 궁전들과 아영소들을 활활하게 변모시켜주시여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해주신 이야기…

솟구치는 격정에 때없이 가슴젖어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헌명한 령도의 손길이 있어 우리의 주체교육은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높이 만리마의 기상을 안고 끝없이 비약하고있다. 이와 더불어 나라의 부강번영을 떠메고나갈 인재대군이 자라나고 내 조국의 미래가 더욱 아름다와지고있다.

위대한 태양의 빛발로 교육중시, 후대사랑의 새 력사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제시여 사회주의교육테제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그 위대한 생활력을 더 높이 떨쳐갈것이다.

본사기자 김명훈

이 땅우에 펼쳐진 사회주의교육의 대화원에 대하여 말할 때 후대들의 보금자리를 지켜주시고 주체교육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우리는 영원히 잊을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은 원쑤놈들이 무서워 떨던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지만 학생소년들을 끝없이 사랑하신 자애로운 어버이, 다심한 학부형이시였습니다.》

후대교육의 운명은 총대의 위력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총대가 약하면 국권을 빼앗기게 되고 아이들이 제 나라의 말과 글을 배울 교실 하나 지켜줄수 없게 된다. 력사는 이 진리를 뼈저린 교훈으로 새겨놓았다. 우리 나라의 근대교육사가 이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치시며 준엄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단 한시도 중단함이 없이 교육사업을 밀고나가기 위한 투쟁을 헌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지난 세기 90년대에 우리 인민은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최악의 시련을 겪었다. 당시의 엄혹한 현실은 교육사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일군들과 인민들, 교육자들의 심장에 금옥과도 같은 귀중한 명언을 새겨주시였다.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을 한걸음 늦추면 조국의 전진이 열걸음 떠진다.》

여기에는 교육을 중시하고 앞세워나가는 길에 조국과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심원한 사상과 함께 청운한 날에나 시련의 시기에나 변함없이 견지해야 할 후대교육에 대한 혁명적관점과 립장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오늘도 우리 청소년학생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장군님과 아이들》은 그 얼마나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는것인가.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아영소로,

정녕 우리 장군님 낮이나 밤이나 이어가신 선군의 길우에 후대들의 행복이 꽃펴났음을 뜻깊은 이 노래에 담아 가슴뜨겁게 전하고있는 우리 인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집필하신 수많은 로작들에도 그이의 숭고한 후대관, 교육관이 빛발치고 묻소 찾으신 대학들과 산골군의 학교들에도 교육혁명의 불길을 앞장에서 지펴가신 절세위인의 열화같은 사랑의 세계가 뜨겁게 깃들어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과학기술교육, 콤퓨터교육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수재교육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이 이룩되여 내 나라를 믿음직하게 떠받들 인재들이 무수히 자라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가신 선군정치와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도 변함없었던 우리 당의 교육중시사상으로 하여 세계에 우뚝솟은 강위력한 조국의 오늘이 있음을 우리 어찌 천만년세월이 흐른들 잊을수 있으랴.

어버이장군님께서 선군으로 다져주신 굳건한 토대와 잠재력이 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주체교육의 미래는 끝없이 창창하며 우리 조국은 반드시 21세기 사회주의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명언해설 ‖

《교육사업은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이 명언에는 교육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가 뚜렷이 밝혀져있다.

교육사업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발전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그 어느 나라와 민족도 교육사업을 떠나서는 앞날을 기대할수 없으며 사회적진보와 번영도 이룩할수 없다. 교육의 발전수준이자 인간의 문명수준이고 해당 나라의 국력과 발전의 높이이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교육에 의한 국가진흥전략과 인재강국전략을 내세우고 교육발전에 큰 힘을 넣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교육중시사상과 정책에 의하여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는 모든 청소년학생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우리 나라를 21세기 사회주의교육강국으로 되게 하는것이다. 이것은 가장 정당하고 웅대하며 현실성있는 목표이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교육사업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고있는것은 세상에서 제일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끝없이 빛내이고 백두산대국의 강대성과 불패성을 확고히 담보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교육사업은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을 키우는 영예로운 사업이다.

혁명은 대를 이어 계속되는것만큼 그 승계와 전도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어떻게 교육교양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을 한걸음 늦추면 조국의 전진이 열걸음, 백걸음 떠지게 된다.

일찌기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후대교육사업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 토대하여 해방후 첫 시기부터 이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으며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주체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그대로 체현하시고 수령님의 교육중시사상과 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시였으며 그처럼 엄혹한 고난의 시련속에서도 후대교육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친어버이, 학부형이 되시여 나라의 후대교육발전에 온갖 심혈과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있어 준엄한 년대들마다 주체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온 계승자의 대무대가 튼튼히 준비될수 있었다.

교육사업은 혁명의 대를 이어주고 나라의 발전을 떠밀어주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다른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며 아무리 어려워도 후대교육사업은 한시도 중단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것이 우리 당의 교육중시사상이고 정책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키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주시고 이르는 곳마다에 후대교육의 원종장들을 훌륭하게 꾸려주시였으며 교육부문을 최우선시하는 기풍, 기강을 세워주심으로써 오늘 우리 학생소년들은 혁명의 계승자, 나라의 역군으로 더욱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다.

교육사업은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인재대군을 키우는 중차대한 사업이다.

오늘의 시대는 과학기술이 사회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지식경제시대이며 인재들에 의하여 나라의 국력과 경제문화의 발전이 좌우되는 인재중시의 시대이다. 우리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고 문명과 번영의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나가자면 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선군조선의 기둥감, 재능있는 인재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야 한다.

사람들은 교육을 통하여 현대과학기술과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에 자연개조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 교육사업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을 지식형근로자로, 과학기술인재로 준비시킬 때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 과학으로 흥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자면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를 가까운 앞날에 세계적인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오늘 우리에게는 가까운 앞날에 인재강국화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도가 있고 누구나 일생동안 학습할수 있는 배움의 전당, 거점들이 있으며 원격교육을 비롯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정연한 교육체계가 완비되여있어 최강의 주체탄, 주체무기들을 척척 만들어내는 새 세대 청년과학자들과 같은 유능한 인재대군이 자라나고있는것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언의 진수를 심장깊이 새기고 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명주혁

박봉주총리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현지료해

박봉주내각총리가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수령의 유훈관철,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사회주의의 마지막결승선을 향한 총돌격전에 한시람같이 떨쳐나선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대상설비생산에서 날마다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총리는 기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만리마의 무쇠발굽으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봉쇄책동을 짓뭉개버리면서 생산적앙양의 불바람을 일으키고있는 로동계급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생산공정의 주체화, 현대화를 다그쳐 단천발전소에 보내줄 발전설비를 비롯한 중요대상설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련관단위들에서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였다.

이에 앞서 총리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돌아보면서 당이 제시한 과일생산의 과학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온 세계를 뒤흔든 장쾌한 핵뢰성—우리를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소식에 접한 각계의 반향

자력갱생의 전통을 억세게 이어가리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했다는 우리 공화국의 핵무기연구소 성명에 접하고보니 참으로 높뛰는 격정과 흥분된 심정을 금할수 없다.

장쾌하게 울려퍼진 이 특대사변에 대한 소식은 세계만방에 알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에 대한 엄숙한 선언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주변관계가 어떻게 바뀌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불변집로를 따라 곧바로 나아갈것이며 자주와 정의의 수호자로서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할것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가 일일천추로 갈망해온것은 오늘처럼 우리 공화국이 온 세상에 빛을 뿌리는 강국의 지위에 올라서는것이였다.

기쁨과 환희, 준엄한 시련이 엇갈리며 흘러온 그 나날들에 우리 금속공업부문이 튼튼히 다져놓은것은 결코 자립의 무쇠기둥만이 아니다.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우리 로동계급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닦여낸 쇠물은 경제건설과 함께 국력강화에 크게 이바지되였다.

지금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은 우리에게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고 야만적인 제재압살책동의 도수를 높이며 마지막발악을 하고있다.

오늘의 특대사변을 계기로 적들은 우리 인민의 강경한 의지와 핵억제력을 가소롭게 시험하려들지 말아야 한다.

공화국의 핵무기연구소 성명에 접한 우리 금속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지금 인류의 온갖 원쑤들을 말로써가 아니라 총대로 결판낼 불같은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모두가 완벽한 동원태세를 갖추고 전시생산에 진입한 심정이다. 한손에는 총을 들고 다른 손에는 마치를 들고 정의의 성전을 기다리고있다.

모든것을 국방공업부문 결사대원들의 투쟁기풍으로, 이것이 또 한차례의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이라는 보도에 접한 우리 금속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격앙된 웨침이다.

나라의 강철전선을 지켜선 우리는 백두산혁명강군과 함께 주체의 우리 조국을 철강재증산과로 전결히 옹위하겠다.

지금 김철과 황철,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굴지의 철강재생산단위들에서는 적들의 경제봉쇄의 쇠사슬을 짓뭉개버리기 위한 영웅적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무산과 은률을 비롯한 철광석생산단위들에서도 나라의 강철기둥을 더욱 억세게 다지기 위한 공격전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우리는 비상한 각오와 실천력을 지니고 생산현장에 뛰여들어 대오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진격의 기수, 화선의 기관차가 되겠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에 파렬구를 내기 위해 주체철생산단위들의 능력을 더욱 높이고 모든 금속공장들에서 수입원료에 완전한 종지부를 찍도록 하겠다.

수소탄시험에서 또다시 성공한 국방과학전사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금속공업부문에서 철생산원가를 낮추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더욱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겠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자립경제의 튼튼한 잠재력에 토대하여 자력갱생의 투쟁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감으로써 오늘의 특대사변으로 더욱 높아진 사회주의조국의 존엄을 철강재생산으로 옹위해나가겠다.

금속공업상 김 충 걸

당의 선군령도따라 끝까지 곧바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것입니다.》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한 소식에 접한 우리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가슴가슴은 지금 무한한 격정과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주체의 핵강국의 위용을 다시한번 높이떨치였으며 사회주의강국에로 폭풍쳐나아가는 선군조선의 앞길은 그 어떤 힘으로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이번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은 병진상부한 핵강국으로서의 우리 조국의 지위를 세계만방에 다시금 뚜렷이 과시한 특대사변이며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최후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예고하는 민족사적페거이다.

세계를 뒤흔든 오늘의 승리는 전적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담대한 배짱과 무비의 담력, 비범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우리 당의 선군정치, 병진로선이 안아온 위대한 승리이다.

우리 자강도안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백년숙적 미제와 총대로 결산할 의지안고 반미성전에 떨쳐나선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앙양된 보복의지를 천백배로 분출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반미대결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게 하겠다.

모든 당조직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의 기둥을 억척으로 세워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드세게 벌려나가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가 되게 하겠다.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강력이고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것을 대중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주어 그들이 원쑤격멸의 의지로 만리마속도창조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새 기준, 새 기록이 끊임없이 창조되게 하겠다.

당의 선군령도따라 끝까지 곧바로 나가려는것은 우리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올해 우리가 내세운 전투목표는 방대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실현할 신심에 넘쳐있다.

우리에게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그처럼 어려운 시기에 강계정신을 창조한 경험이 있다.

강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속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깊이 심어주어 올해 내세운 전투목표들을 앞당겨 수행해나가도록 하겠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굳게 뭉쳐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림으로써 오늘의 만리마시대를 영웅적위훈으로 빛내여나가겠다.

자강도당위원회 위원장 김 재 룡

첨단기계공업의 개척자들을 더 많이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하였다는 통쾌한 소식, 미제의 최후멸망을 선언하는 민족의 대경사에 접하고보니 심장이 세차게 높뛰고 승리의 신심이 더욱더 백배해진다.

그럴수록 또 한차례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이 숭엄히 어려와 눈시울이 뜨거워오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분명은 교육수준에 의하여 담보되며 우리 국가의 미래는 교육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전대미문의 초강도제재와 봉쇄를 미법이며 핵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는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뒤통수를 호되게 후려갈긴 력사적인 폐승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우리 평양기계종합대학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은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 또 드리고있다.

그리고 국가핵무력완성의 완결단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된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을 위해 애국충정의 더운 피를 끓이며 결사전을 벌린 원자력부문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군인들과 일군들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낸다.

우리들은 이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본받아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첨단기계공업의 개척자, 정복자들을 더 많이 키워낼 불타는 행세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교육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학생들속에서 혁명적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인재육성성과를 확대해나가는데서 선군시대 교육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겠다.

우리들의 가슴마다에는 현대화된 공장들을 찾으시여 현장에서 첨단돌파전을 벌리고있는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을 만나주시고 자그마한 성과도 높이 평가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그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우리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첨단돌파전의 거세찬 열풍속에 올해에만도 짧은 기간에 도로바닥선치는기계를 만들어내는데 적극 기여하고 새로 건설된 어느 한 공장에 달려나가 철야전투를 벌리며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하여 생산공정의 자동화, 흐름선화를 실현함으로 비롯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어리차례 기쁨을 드리였다.

그 나날에 우리들은 과학기술에 의거한 자력자강의 위력에 대하여 더욱 깊이 느끼게 되였다.

우리는 이룩된 과학교육성과들에 만족하지 않고 전대하에 당중앙결사옹위, 당정책결사관철의 혁명적기풍이 싹 차넘치게 하여 만리마시대의 첨단과학기술성과들이 끊임없이 창조되도록 하는 한편 교원, 연구사, 학생들을 권위있는 학자들로, 재능있는 인재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나가겠다.

우리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 앞으로!》라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당의 전략적구상을 실천적성과로 받들어나가고있는 국방과학전사들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내 조국을 21세기 사회주의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빛내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지혜와 힘과 열정을 다 바쳐나가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평양기계종합대학 총장 방 순 철

온 세계를 뒤흔든 장쾌한 핵뢰성에 화답하여 대상건설을 앞당겨 끝낼 열의에 넘쳐있다.
—216사단 해산—삼지연철길건설려단 북부철길청년돌격대에서— 본사기자 리 진 명 찍음

알곡증산의 승전고를 높이 울리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타격방향입니다.》

정말 숨이 후련하고 가슴이 뿌듯해진다. 첫 수소탄시험에서 성공하여 얼싸안고 만세를 부르던 때가 엊그제같다.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했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은 우리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을 무한한 격정과 환희로 들끓게 하고있다. 적들이 《3.18혁명》과 《7.4혁명》을 거쳐 7.28의 기적적승리에 대한 충격쇼크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또다시 악의 제국, 침략의 원흉의 정수리를 강타한 이번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소식은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는 형언할수 없는 기쁨과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고 적들에게는 무서운 절뢰를 안긴 반만년력사에 특기할 대장기이다.

이 장쾌한 승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내 나라, 내 조국을 그 어떤 원쑤도 범접못하는 사회주의제일강국으로 빛내이실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관철에로 천만군민을 힘있게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오늘과 같이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로케트강국, 불패의 핵강국의 최고경지에 올려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다.

오늘의 대승리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 백배, 천배의 열의를 더해주고있다. 우리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섰다는것을 명심하고 알곡증산투쟁에 총돌격, 총매진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함으로써 미제의 면상을 다시한번 후려치겠다. 무진막강한 국방력에 쌓만있으면 적들의 그 어떤 제재책동도 물거품으로 만들수 있다.

수소탄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여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대국의 자주적존엄과 위용을 다시한번 만방에 과시한 국방과학전사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한개 군의 농사를 책임진 일군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겠다.

오늘날 사회주의혁명성은 우리 당, 우리 사상, 우리 제도를 옹호보위하기 위한 총포성없는 대격전장이다. 우리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최전방에 서있다는 책임감을 안고 더욱 분발하여 농업생산에서 전변을 일으키겠다. 현실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고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 무슨 일을 하나 해도 오붓얼도식으로가 아니라 판장을 볼 때까지 근기있게 내밀어 과학적인 농사방법들이 현실에서 온을 내도록 하겠다.

또한 우량품종과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며 영농공정별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반드시 풍년날가리를 높이 쌓아올림으로써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짓부셔버리겠다. 당면하게는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최대한 폭발시켜 가을걷이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겠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톤전기계들과 농기계들의 만가동보장에 필요한 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워나감으로써 애써 지어놓은 낟알을 한알도 허심함이 없이 최단시일내에 거두어들이겠다.

하여 만리마선구자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국가핵무력건설의 전초선에 선 《핵전투원》들이 올린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을 알곡증산의 대승전고로 이어나가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문덕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최 덕 삼

공화국내각에서 제29차 여름철세계대학생 체육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을 위하여

연 회 마 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서는 제29차 여름철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을 위하여 4일 옥류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동지와 리일환 당중앙위원회 부장,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일국체육상, 김춘식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서기장, 관계부문 일군들, 선수, 감독들과 가족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동정호내각부총리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는 당의 주체적인 체육강국건설사상을 높이 받들고 뜨거운 애국심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우리 식 경기전법을 구현하여 제29차 여름철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에서 주체조선의 기상과 위용을 힘있게 과시한 선수, 감독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우리 선수들이 이번 경기대회에서 거둔 성과는 미제와 추종세력들의 전례없는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을 자력자강의 무쇠마치로 짓부셔버리기 위한 총결사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온 나라 인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선수, 감독들이 조국의 영예를 떨치는 우승의 금메달은 혼련에서 흘린 땀방울에 의하여 마련된다는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국제경기들마다에서 련전련승만을 안아오는 당과 조국의 창된 체육전사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김국향선수가 답사를 하였다.

그는 체육인으로서 응당 할 일을 한 자기들에게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전체 참가자들의 충정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이번 경기대회에서 성과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달려고 세계의 앞장에서 달리고 이겨도 통쾌하게 이기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워 승리하고야마는 주체조선의 체육정신을 심어주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준 어머니당의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때문이라고 그는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는 혁명적체육인의 영예로운 본분과 조국과 인민의 기대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사상정신적, 육체기술적강자로 튼튼히 준비하며 국제경기들에서 람홍색공화국기를 더 높이, 더 자랑차게 휘날려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안녕을 삼가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평양시녀맹원들 경제선동과 돌격대활동 힘있게 전개

평양시안의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경제선동과 돌격대활동 등을 활발히 벌리면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라는 애국의 물음을 심장에 간직하고 이들은 최근 한달동안에만도 자력갱생대진군로성이 울려퍼지는 시안의 중요공장, 기업소와 건설장, 협동밭들에 나가 다양한 활동을 힘있게 전개하였다.

시녀맹위원회에서는 모든 녀맹원들을 오늘의 대고조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는 한편 일군들이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고있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 나간 정선, 보통강, 모란봉구역의 녀맹예술선동대원들은 힘있는 경제선동과 후방사업으로 설비보수전투에 떨쳐나선 로동계급을 고무함으로써 보수기일을 종전보다 훨씬 앞당기는데 기여하였다.

만경대, 사동, 서성, 락랑구역안의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은 적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속에서도 올해 알곡생산에서 통장혼을 부둥켜세워 기세드높이 농작물비배관리를 잘해나가고있는 사동구역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만경대구역 만경대남새전문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들에서 농업근로자들을 증산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해설선전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녀맹원들의 기백넘친 출근길선동으로 수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우리는 만리마기수》, 《사회주의전진가》, 《사회주의는 우리 생활 우리 생명》 등의 노래소리가 힘차게 울려퍼지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가려는 근로자들의 열의가 비상히 높아가고있다.

대동강유보도개작공사장을 비롯한 여러 공사장들에서 대동강, 동대원, 선교구역 등의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은 돌격대를 꾸리고 힘찬 투쟁을 벌려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의 미더운 체육인들에게 더 좋은 훈련조건을 마련해주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보통강, 정천, 중구역을 비롯한 시안의 녀맹원들은 체육시설들을 훌륭히 꾸리는 사업에도 적극 참가하여 수삼나무, 정향나무 등 1만 5 000여그루의 나무를 심고 넓은 면적의 잔디밭을 조성하였다.

성의껏 마련한 후방물자와 로동보호물자들을 가지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학교들에 나간 룡성, 순안구역의 녀맹원들도 건설자들을 위혼창조에로 고무해주었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화원속에 솟아난 원아들의 보금자리, 훌륭한 배움터

서 해 학 원 준 공 식 진 행

【안주 9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후대사랑을 제일중대사로 내세우는 어머니당의 손길아래 아이들의 밝고 명랑한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퍼지는 속에 조국땅 서부지구에 원아들을 위한 학원이 새로 건설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40돐을 맞으며 안주시의 풍치수려한 명당자리에 특색있게 일떠선 서해학원에는 다기능화, 정보화된 교실들과 실험실습실 등이 있는 교사와 기숙사, 식당, 체육관을 비롯한 교육환경과 생활조건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져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며 학원이 희한하게 건설됨으로써 원아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배우며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역군들로 씩씩하게 자라날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속에 마련된 서해학원 준공식이 4일에 진행되였다.

판계부문 일군들, 조선인민내무군 정치국장이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천만군민이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의 승리봉을 향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서해학원 준공식을 가지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서해학원은 이 세상 천만부모의 정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뜨거운 사랑으로 온 나라 아이들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후대들에게 마련해주신 행복의 보금자리이며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기념비적창조물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나라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수십차례에 걸쳐 학원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의 구상과 결심이라면 천만산악도 단숨에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결사관철의 투사들인 인민보안성, 인민내무군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방대한 학원건설을 짧은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였으며 많은 단위들에서 성의있는 지원으로 완공의 날을 앞당기는데 기여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전체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아이들의 밝은 미래와 아름다운 꿈을 지켜주고 활짝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연설자는 누구나 학원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원아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줌으로써 당의 교육중시정책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하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훌륭히 꾸려진 학원을 돌아보았다.

위대한 교육테제의 빛발아래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우리의 주체교육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발표 40돐을 맞으며

사회주의교육건설의 진로를 밝힌 불멸의 대강

우리 주체교육이 걸어온 자랑찬 로정우에 찬란히 빛나는 불멸의 기치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이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나날 이 불멸의 대강을 높이 추켜들고 우리의 사회주의교육은 비약의 한길로 줄달음치며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왔다.

지금 온 나라 교육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교육대강을 마련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으로 가슴을 뜨겁게 적시고있다. 그와 함께 이 땅에 일떠설 문명강국, 인재강국의 래일을 가슴벅차게 그려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주체의 사회주의교육의 대강입니다.》

사회주의교육테제는 우리 혁명의 밝은 전도와 끝없이 무강번영할 조국의 앞날을 환히 내다보신 어버이수령님의 선견지명과 빛나는 예지가 낳은 고귀한 사상리론적지침이다.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육성의 길, 사회주의교육건설의 옳바른 진로를 제시한 로작은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도 새 세기 주체교육이 나아갈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바로 여기에 조국과 혁명의 먼 장래를 내다보시고 주체교육의 대강을 마련해주신 우리 수령님의 사상리론적업적의 위대성이 있는것이다.

과학과 인재로 부흥하고 교육으로 국가발전을 이룩하려는것은 모든 나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이로 하여 나라들사이에 교육경쟁이 더욱더 치렬해지고 발전하는 시대와 함께 새 세기의 교육은 나날이 변모되고있다.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 교육관리와 체계의 개편, 교육의 정보화와 현대화실현 등 교육분야에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발전이 이룩되고있는것이 오늘의 세계이다.

현시기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를 놓고보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육성문제를 중심에 놓고 교육발전의 길을 모색한다는데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통하여 우리는 절세위인들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더욱 가슴깊이 절감하게 된다.

많은 나라들이 능력교육을 중시하면서 교육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교육으로 지향시켜나가고있는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창조적인 응용을 기본으로 하는 능력교육을 강화하는것은 이미 수십년전에 우리 당이 제시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멸의 교육대강인 사회주의교육테제에서 인식의 주체는 사람들자신이라는 사상을 다시금 천명하시고 학생들의 자립성과 창발성, 자각성과 적극성을 발양시키는것을 깨우쳐주는 교육방법의 본질적특성, 요구로 정식화해주신것은 참으로 선견혜안의 예지의 발현이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가장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전민교육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고 학교전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의 병진을 사회주의교육방법의 하나로 정식화해주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문제가 이미 빛나게 해결되였다.

전국각지에 세워진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등 일하면서 배우는 정연한 고등교육체계와 재교육체계를 통하여 우리 인민은 누구나 학습을 중단없이 하며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자질을 갖추어나가고있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도처에 일떠세운 도서관, 회관을 비롯한 사회교육교양기관들에서도 우리 인민은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있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교육테제를 높이 받들고 현대문명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에서도 아직까지 완성하지 못한 전민학습, 전민교육체계를 이미 정연하게 세워놓았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우리의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의 힘있는 과시로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도덕륜리교육, 미학정서교육에 낯을 돌리고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는 방향에서 교육내용을 꾸리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교육실태를 보아도 정치사상교육을 확고히 앞세우고 과학기술교육을 폭넓고 깊이있게 함에 대한 우리 당의 교육방침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깊이 느낄수 있다.

이렇듯 위대한 사회주의교육대강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조국은 교육의 나라로 이름떨치며 년대와 세기를 이어 더 높은 령마루에로 솟구쳐오를수 있었다.

지난 40년간 이 땅우에는 절세위인들의 후대사랑의 력사가 끝없이 흐르고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교육제도가 더욱 공고발전되여 혁명인재육성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그 얼마나 훌륭한 인재의 대부대가 자라나 조국을 떠받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힘차게 전진시켜왔던가.

기술대학부문만 놓고보더라도 대학수가 3배로 장성한것을 비롯하여 온 나라에 학교들이 더욱 늘어나고 수재교육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 최첨단돌파전의 기수, 유능한 인재들을 수많이 키워낸것 등 사회주의교육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우리 조국이 사회주의강국의 령마루에로 더욱 비약하고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지난 40년간의 성과에서 가장 큰 사변으로 되는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를 놓고서도 우리는 사회주의교육테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가슴뿌듯이 느낄수 있다.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조국관, 후대관, 미래관이 집약되여있는 중대한 조치로서 우리 공화국이 교육강국, 사회주의문명강국으로 힘차게 나아간다는것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일대 사변으로 되였다.

이와 함께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속에서 교육체계가 더욱 완비되고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에서도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속에 온 나라에 새 교사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교육의 정보화,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여 교육기관들의 면모가 근본적으로 일신되였다. 원격교육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의 토대도 튼튼히 마련되였다.

새 세기 교육혁명에 관한 사상은 사회주의교육테제를 영원한 표대로 틀어쥐고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는 위대한 기치이다.

우리 나라를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사회주의교육강국, 인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는 보람찬 투쟁의 앞길에 위대한 기치로 휘날리는 절세위인들의 주체적인 교육사상리론은 조국의 천만년미래를 확고히 담보하는 불멸의 지침으로 오늘도 래일도 영원한 생명력을 발휘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힘있게 추동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공로혁

온 나라를 들끓게 하는 경쟁열풍

교육발전의 추동력－모범교육군칭호쟁취운동

모범교육군칭호쟁취운동은 교육자들과 후대들을 우리 당의 사상과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주체형의 혁명가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쓸모있는 인재로 키우며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여 교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한계단 높이고 교육사업에서 집단적모범을 창조하는 대중운동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해 군을 단위로 모범교육군칭호쟁취운동을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94(2005)년 10월 모범교육군칭호쟁취운동을 보다 활발히 벌리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온 나라에 교육중시, 학교지원열풍이 더욱 세차게 일어번지게 되였다.

오늘 당의 현명한 명도밑에 이 운동은 더욱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불타는 마음을 안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 교육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결과 전국각지의 시, 군(구역)마다 학교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이 일신되고 교육방법이 끊임없이 개선되는 등 교육사업에서 전례없는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학교의 자랑－영예의 붉은기학교칭호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7(1978)년 2월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전국의 모든 학교들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일환으로 영예의 붉은기학교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 운동의 목적은 소학교, 중학교들에서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고 능력있는 혁명의 후비대를 튼튼히 키워내도록 하는데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영예의 붉은기학교칭호쟁취운동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75(1986)년 6월 조선소년단창립 40돐을 맞으며 2중영예의 붉은기학교칭호쟁취를 위한 결의목표를 수행한 중학교, 소학교들에 2중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하도록 밑음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뿐만 아니라 2중영예의 붉은기를 수여받은 학교들중에서 특별히 모범적인 단위에는 김일성훈장을 수여하도록 해주시였다.

지난 수십년간 전국적으로 수많은 학교들이 영예의 붉은기학교칭호를 쟁취함으로써 우리의 새 세대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억세게 자라나고있음을 힘있게 시위하였다.

교육자의 영예－10월8일모범교수자

주체91(2002)년 10월 8일 백두산기슭에 자리잡은 삼지연군 무봉중학교(당시)를 찾으시여 교수참관을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수교양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교육부문에서는 해마다 이 뜻깊은 날을 계기로 전국의 우수한 교원들을 10월8일 모범교수자로 등록하고 그들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이 과정에 온 나라의 교육자들속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풍부한 교수교양경험과 높은 지식을 쌓기 위한 열의가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수많은 교육자들이 10월 8일모범교수자로 자라났다.

오늘도 10월8일모범교수자의 영예를 지니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려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불타는 마음을 안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 교육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결과 전국각지의 시, 군(구역)마다 학교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이 일신되고 교육방법이 끊임없이 개선되는 등 교육사업에서 전례없는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와 함께 학교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도록 중앙으로부터 도, 시, 군에 이르기까지 각급 학교꾸리기지휘부들을 조직하도록 해주시고 온 나라에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기 위한 전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도록 하시면서 평양중등학원을 중등교육환경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일떠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교육사업이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중시되고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서 근본적인 비약이 일어났다.

중등일반교육부문만 보아도 주체103(2014)년 10월부터 과학교육의 해인 올해 7월까지 전국적으로 새 교사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1만 4 000여개의 교실들이 새로 늘어났으며 1 500여개 교육단위들에서 학교대보수를 진행하였다.

또한 교육의 정보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이 적극 추진되여 7만 8 000여개의 교실들이 다기능화된 교실로 꾸려지고 거의 모든 학교들이 국가망에 가입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이와 함께 4만 6 000여개의 실험실습실들이 교육학적인 요구에 맞게 새로 꾸려졌다.

교육시설과 함께 실험실습기재, 체육기자재들을 일신하며 학교들을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하고 주변환경을 문화적으로 꾸리는데서도 많은 전진을 가져왔다.

이 모든 성과들은 교육사업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고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각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애국열의에 의하여 마련된 귀중한 결실이다.

본사기자

제3차 전국교육과학연구토론회 개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40돐을 맞으며 제3차 전국교육과학연구토론회가 개막되였다.

토론회에는 교육위원회, 교육연구원,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기계종합대학, 고려성균관, 원산농업종합대학,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평양제1중학교, 사리원제1중학교, 보통강구역 류경고급중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120여개 단위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이 참가하였다.

교육사상 및 전략분과, 교육과학리론분과와 4개의 교육과학응용분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교원, 연구사, 일군들이 교육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들을 반영한 460여건의 우수한 론문들이 발표되게 된다.

개막식이 4일 김형직사범대학에서 있었다.

관계부문 일군들, 대학과 각급 학교, 교육과학연구기관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막사를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그는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데서 교육과학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전국적인 교육과학연구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여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은 토론회를 통하여 최근년간 교육과학연구사업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들을 교환하고 현실에서 제기되는 절박한 문제들을 깊이 연구해명함으로써 나라의 교육을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예술종합공연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40돐기념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예술종합공연이 4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동지와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교육부문,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안의 대학, 각급 학교 교원, 연구사들, 성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서장 합창 《보고싶은 원수님》, 노래와 춤 《아버지원수님께 보여드리자》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남중창 《우리 나라 백두산》, 남녀5중창 《웃음 방실 사진을 찍었어요》, 무용 《아름다운 우리 나라》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유치원어린이들은 공연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혜택속에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며 무럭무럭 자라나고있는 자기들의 행복한 모습을 펼쳐보였다.

체육무용 《세상에 부럼없어라》, 녀독창 《장군님 찾아주신 무봉유치원》 등의 종목들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시고 그들의 밝은 웃음을 지켜주시기 위해 한평생 끊임없는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을 뜨겁게 되새기였다.

바이올린중주 《원수님은 파오싱거야》, 피아노와 소합창 《김정은원수님 고맙습니다》를 비롯한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높은 뜻을 받드시여 이 땅우에 미래사랑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은덕을 감명깊게 노래하였다.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미래의 주인공으로 튼튼해가는 어린이들의 명랑한 모습을 보여주는 고음저대독주 《나는야 꽃봉오리》, 교예 《우리도 만리마 탈테요》, 요술 《장수림 키워가요》 등의 종목들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끝없이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후대들을 앞날의 믿음직한 기둥감으로 억세게 키워나갈 결의로 가슴 불태웠다.

【조선중앙통신】

◎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속에 ◎

교육체계를 우리 식으로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들어와 우리의 주체교육은 전반적의무교육기간을 한해 더 늘이고 교종들을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새 세기 교육혁명의 첫 포성을 자랑차게 울렸다.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와 함께 중등일반교육의 교종들과 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개선해나가기 위한 투쟁속에서 전국각지에 수십개의 기술고급중학교들이 새로 나오게 되였다.

기술고급중학교들에서는 일반과목과 함께 자기 지역의 경제리리적특성에 맞는 금속, 석탄, 전력, 수산, 농산, 축산, 과수, 화학부문에 대한 기술과목들을 배워주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떠메고 나갈 인재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낼수 있도록 고등교육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되였다.

모든 대학들에서 해당 단위들이 키워야 할 인재의 류형과 양성목표에 맞게 학제와 학부, 학과와 강좌들을 정리하고 련속고등교육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그리하여 김형직사범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평양기계종합대학,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등이 부문별종합대학으로서의 사명을 다같이 수행하는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과 지역별종합대학으로서 평북종합대학, 황북종합대학이 그리고 많은 직업기술대학들도 새로 나왔다.

대학들을 종합대학화하는 사업은 교육의 일원화를 실현하여 고등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고 중요대학들을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이 하나로 밀착된 지식경제시대의 일류급대학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와 함께 각지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수십개 대학들에서 원격교육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을 더욱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교육내용과 방법의 혁신

교육내용편성에서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은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면서 과학기술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것이다.

중등일반교육부문에서 집행하고있는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은 새 세대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혁명인재로 키우는데 이바지하고있으며 교육부문에서 이것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대학들에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이 줄기차게 벌어져 과정안과 교수요강, 강의안들이 현실이 요구하고 실지 써먹을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고 최신과학기술성과들로 끊임없이 갱신되여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실천과 실험실습, 기능훈련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있다.

실리있고 우월한 교육방법을 창조하기 위한 각지 교육자들의 노력에 의해 새우쳐주는 교수방법들이 수많이 탐구도입되고있다.

학생들의 지적능력과 응용능력을 높일수 있는 교수과정과 교수수단, 수법들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여러가지 교수형태들을 잘 결합하기 위한 사업들이 계속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과외교육교양에 힘을 넣는것과 함께 실력평가방법, 시험방법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하며 그들의 학습열의를 적극 높여나가는데서도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전국적으로 대학입학시험이 원격시험으로 확고히 전환되고 일제시험으로 고급중학교 졸업반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대학들에서 교육과학연구력량을 꾸리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으며 중앙교육과학연구기관으로서의 교육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높아져 나라의 전반적교육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확고히 올려세우기 위한 교육과학연구에서도 큰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교육조건과 환경개선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모든 학교와 대학들의 면모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키려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와 함께 학교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도록 중앙으로부터 도, 시, 군에 이르기까지 각급 학교꾸리기지휘부들을 조직하도록 해주시고 온 나라에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기 위한 전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도록 하시면서 평양중등학원을 중등교육환경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일떠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교육사업이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중시되고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서 근본적인 비약이 일어났다.

중등일반교육부문만 보아도 주체103(2014)년 10월부터 과학교육의 해인 올해 7월까지 전국적으로 새 교사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1만 4 000여개의 교실들이 새로 늘어났으며 1 500여개 교육단위들에서 학교대보수를 진행하였다.

또한 교육의 정보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이 적극 추진되여 7만 8 000여개의 교실들이 다기능화된 교실로 꾸려지고 거의 모든 학교들이 국가망에 가입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이와 함께 4만 6 000여개의 실험실습실들이 교육학적인 요구에 맞게 새로 꾸려졌다.

교육시설과 함께 실험실습기재, 체육기자재들을 일신하며 학교들을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하고 주변환경을 문화적으로 꾸리는데서도 많은 전진을 가져왔다.

이 모든 성과들은 교육사업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고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각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애국열의에 의하여 마련된 귀중한 결실이다.

본사기자

철의 기지에 나래치는 결사관철의 정신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

철의 기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 불의 녀하가 세차게 굽이친다.

침략자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에게 들씌우는 불세례마냥 산소열법용광로에서 지난해보다 2배이상에 달하는 주철철이 생산되고 초고전력전기로에서도 잘 익은 쇠물이 연방 쏟아져나오고있다.

최근년간 보기 드문 생산활성화의 숨결속에 황철에서 이룩되는 철강재생산성과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불굴의 의지가 어떤 높이에 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속공업부문에서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철생산원가를 낮추고 주체화된 생산공정들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철강재를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온 나라에 원쑤격멸의 열기가 용암마냥 끓어번지는 지금 련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기세도 하늘을 찌를듯 높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해 질풍노도쳐 내달리는 이곳 로동계급의 결사적인 투쟁위훈은 주체철과 강철생산현장마다에 뚜렷이 새겨지고있다.

지난 7월 중순 어느날 강철직장 초고전력전기로에서 한차례의 쇠물을 끓어낸 후였다.

로체검사과정에 로벽과 바닥에서 내화벽돌의 일부가 손상된것이 발견되였다. 시급히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로동제가 파손될수 있었다.

기업소와 직장일군들이 참가한 긴급협의회에서는 신속히 로를 보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일군들은 로보수가 증량페루생산과 월계획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것을 타산하여 보수기일을 최소한 한주일로 계획하였다.

이 사실이 현장에 전해졌을 때 용해공들의 심장은 과연 어떤 의지로 고동쳤는가.

한주일동안이나 로를 세워둘수는 없다. 한차지의 쇠물이라도 더 뽑아야 나라의 강철기둥이 굳건해진다.

용해공들의 이런 의지에 떠밀려 한주일로 잡았던 보수날자는 이틀로 앞당겨졌다. 그 기간에 이곳 용해공들은 로체안의 내화벽돌을 전부 교체할 보다 통이 큰 목표를 내세웠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였던가. 일종의 모험이였다. 로를 충분히 식히자면 최소한 이틀은 걸려야 했다. 그 시간마저 아까와 결사전을 벌리려는 용해공들의 결심은 비장했다. 전투를 앞두고 당원협의회가 열리고 결사대가 무어졌다.

로를 세운지 몇시간이 흘렀지만 로바닥에는 채 식지 않은 불덩이가 이글거렸다.

로장 림영철동무와 용해공들인 라동윤, 손홍종동무들이 뜨거운 로속에 뛰여들어 몸에 적신 말판을 가로질러놓고 벽돌해체작업에 진입하였다.

이렇게 한조가 달라붙어 3분간을 넘기기 바쁘게 다음교대가 뛰여들기를 수십번…

용해공들은 이렇게 뜨거운 열을 결사의 의지로 이겨내며 벽돌해체구간을 한치한치 넓혀나갔다.

한초한초 긴장한 전투가 벌어지던 그때 보수전투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온 기업소에 전해졌다. 현장으로 기동예술선동대와 녀맹원들은 물론 후방부문 위사원들과 지원자들도 달려왔다.

하루해가 저물고 밤은 깊어갔으나 로보수전투장은 더욱 세차게 들끓었다.

용해공들과 기업소종업원들의 혁명적의지에 떠밀려 전투가 시작된지 18시간만에 드디어 내화벽돌해체작업이 전부 끝났다. 그렇다고 전투장에 고요가 깃든것이 아니였다.

깊이가 수m나 되는 로바닥에 남아있던 쇠물덩이에 쇠바줄을 걸어야 했을 때였다.

직장초급당일군인 리혁만동무가 확성기를 틀어잡고 로체우에 올라 전시카요를 선창했다. 용해공들의 뒤를 이어 위사원들도 물운반전투에 합세하였다. 고무렵 로바닥에 뛰어든 김창근, 리성준, 최세운동무들은 뜨거운 열속에서 식어가는 쇠물덩이에 쇠바줄을 신속히 걸고 천정기중기를 향해 소리쳤다. 돌파구는 이렇게 열리였다.

새날이 푸름푸름 밝아오는무렵 속로직장 전투원들이 련이어 벽돌축조전투에 진입하였다. 그로부터 20여시간만에 보수전투는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강철직장 용해장에서 로보수를 위한 치렬한 격전의 이틀이 흐를 때 련합기업소 산소분리기 2직장에서는 또 어떤 화폭이 펼쳐졌는가.

용광로의 가동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이곳 직장에서 뜻하지 않게 공기량이 적어지면서 산소생산량이 떨어졌다. 원인은 퇴수관으로 적지 않은 공기가 암솔되는데 있었다.

용광로의 숨결이자 조국의 진격속도이다.

이런 의지를 가다듬고 공기량각기의 물관을 수리정비하는 전투에 뛰어든 용광로직장과 소결로직장, 운수화차수리직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 일군들과 전투원들은 200개이상의 물관들을 전부 분리하고 손댈없이 정비해야 하는 어렵고 방대한 작업량을 불과 이틀동안에 해제끼는 집단적혁신을 창조하였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에게 쇠몰록포를 들씌우는 심정으로 철강재증산의 숨결을 지켜나선 혁신의 기수들이 어찌 이들뿐이랴.

산소열법용광로의 출선구와 보이라천정을 새롭게 개조하여 보수기일을 종전보다 훨씬 줄이고 주체철생산정상화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김경철동무를 비롯한 용광로직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이며 가열로안의 내화벽돌을 교체해야 했을 때 식지 않은 강피를 그대로 두고 로보수전투를 벌린 조강직장 전투원들, 기본공정설비들의 만가동보장을 위해 최단기간에 전동기수리실적을 높인 청년전기수리직장 로동계급과 수많은 과철을 마련해가지고 달려온 송림시의 수천명에 달하는 녀맹원들모두가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총진군길에 뚜렷한 자욱을 새기였다.

오늘도 철의 기지 황철에서는 쇠물보다 뜨거운 충정과 원쑤격멸의 의지로 가슴끓이는 이런 결사관철의 투사들에 의해 철강재증산의 열풍이 갈수록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본사기자 지 원 철

과수학연구소현대화공사 마감단계에서 추진

평 안 남 도 에 서

우리 당의 온정어린 조치에 의하여 농업연구원 과수학연구소현대화공사가 마감단계에서 계속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이미 과학연구실청사와 사무청사, 함숙 및 정양소골조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낸 평안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그 기세로 내부공사와 조직배양 및 순화온실건설을 동시에 힘있게 내밀면서 련일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과학자들을 위한 모든것을 다 최상의 수준에서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과일을 먹이시기 위하여 언제나 마음쓰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수학연구소를 현대적으로 건설할것을 직접 발기하시고 연구소를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이 일떠세우도록 온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도의 책임일군들과 현장지휘부일군들은 많은 대상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며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켰다.

과학연구실청사건설에 참가한 숙천군과 평안남도도시건설려단을 비롯한 여러 시공단위들에서는 로력조직을 짜고들고 건설자재보장대책을 적극 따라세우는 한편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일으켜 일정계획을 날마다 넘쳐 수행하고있다.

이들은 짧은 기간에 하부구조공사와 외벽타일붙이기공사를 끝낸데 이어 난방공사를 힘있게 내밀면서 내부마감공사에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과수학연구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만은 대상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려가고있다.

그들은 당의 구상과 결심을 최단기간내에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해 합리적인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사무청사의 내부미장과 타일붙이기 등 모든 작업을 마감단계에서 질적으로 해나가고있다.

개천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이 바란다면 가능성을 타산하기 전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이들은 함숙 및 정양소내부미장공사, 난방공사를 끝낸데 이어 바닥타일붙이기공사에 력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조직배양 및 순화온실건설을 맡은 과수학연구소와 순천시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외벽타일붙이기와 온실유리설치공사를 완성한데 이어 내부공사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율리리공사와 강하천정리도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북창군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1 200여m의 하천정리, 옹벽쌓기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낸데 이어 율리리장식판간공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도당책임일군을 비롯한 도의 일군들과 숙천군 일군들이 건설장에 자주 나와 공사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건설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관심을 돌리면서 모두가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내각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들에서 타일, 유리, 수지창문 등 건설마감자재들을 보장해준데 이어 여러가지 분석설비들과 가구들, 비품들을 보내주어 건설자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해주고있다.

지금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하루빨리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부탁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현대화공사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정 성 일

전국실험기구 및 교편물전시회, 교육도서전시회 개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40돐을 맞으며 전국실험기구 및 교편물전시회와 교육도서전시회가 개막되였다.

올해를 과학교육의 해로 정해준 당의 의도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온 각급 교육기관들과 교육출판기관들에서는 이번 전시회들에 1 000여종의 실험기구와 500여점의 교편물, 2 000여건의 다매체편집물들과 모의실험실습프로그람들, 3 000여종의 교육도서들을 내놓았다.

우리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성, 중앙기관들, 각지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각종 교육설비들과 실험실습기재들을 출품하였다.

개막식이 4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였다.

임철웅 내각부총리, 최동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성, 중앙기관, 교육부문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 교양원들, 교육출판기관 기자, 편집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교육사업을 민족만대의 륭성번영을 위한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의 정보화, 현대화실현을 위한 튼튼한 토대가 마련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교육중시, 교육지원열풍속에 열리는 이번 전시회들이 새 세대들을 높은 창조적능력과 고상한 도덕풍모, 건장한 체력을 지닌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믿음직한 역군들로, 지식경제시대를 떠메고나갈 과학기술인재들로 키우는데 이바지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들을 돌아보았다.

미제의 력사유적파괴만행을 폭로하는 증거물들 발견

미제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개성시에서 민족문화유산들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한 특대형범죄행위를 폭로하는 증거물들이 계속 드러나고있다.

최근 개성남대문주변과 관덕정부근의 공사장에서는 또다시 수십발의 박격포탄과 나비탄들이, 우리 나라 5대명종의 하나인 연복사종에서는 박혀있던 녹이 쓴 기총탄알이 발견되였다.

고려시기 왕궁리였던 만월대와 박연폭포의 대흥사부근에서 발견된 산산이 깨여진 기초들, 청기와, 고려도자기들은 미제의 악랄성과 야만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미제공중비적들의 폭격에 의해 전쟁기간 고려성균관, 선죽교 등 개성지구에서만도 20여개의 국보적인 력사유적들이 무참히 파괴되였다.

이 모든것은 전쟁의 포화가 멎은지 60여년세월이 흘러갔어도 정화로운 도시와 마을들을 재더미로 만든것도 모자라 귀중한 력사유적까지 무참히 파괴한 남강도 미제야말로 침략과 략탈의 원흉, 인류문명의 극악한 원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침략자들의 만행을 폭로하는 증거물들은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보복의지를 백배해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만리마대진군에서 영웅적투쟁기풍 높이 발휘

인민경제 여러 부문, 단위의 로동계급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 앞으로!》의 구호를 높이 들고 련발적이며 다발적인 기적적승리를 안아온 국방과학전사들의 투쟁기풍, 투쟁본때를 따라배워 생산전투장마다에서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조선로동계급의 억센 기상과 투지를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전인민적총진군에서 혁명성과 조직성이 강하고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지닌 로동계급이 마땅히 주도적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수행하여야 합니다.》

각지의 로동계급은 자신들이 다루는 설비와 기대들을 곧 우리를 압살하려고 설쳐대는 가증스러운 미제의 쌀통을 짓부셔버리는 위력한 무기로 여기고 정상가동, 만부하를 위한 투쟁에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며 대중적영웅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가고있다.

나라의 위력한 화학제품생산기지인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증기1직장 보이라1작업반 당세포위원장 김금철동무를 비롯한 12명의 당원들은 지난 6월 20일 75t순환비등층보이라의 가동을 멈추어야 할 정황이 조성되자 위험을 무릅쓰고 화실에 뛰여들었다. 그들은 보이라의 숨결이자 주체비날론생산성과라는 자각을 안고 온몸을 땀으로 적시면서 긴장한 전투를 벌려 1시간만에 슬라크를 제거하여 생산정상화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순천기관공장 소재직장 직장장 홍세현동무와 10여명의 로동자들은 지난 3월 소재가열로의 내화벽돌이 탈락되여 생산이 중단되자 모두가 로안으로 용약 뛰여들어 헌신적인 투쟁을 벌림으로써 한달이 걸려야 할 로보수를 단 한주일만에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들은 당의 무릎에 한몸을 내대여 실천으로 화답하는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으로 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려 직장앞에 맡겨진 년간 소재생산계획을 지난 4월 25일까지 앞당겨 끝내였으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평양베아링공장 열처리작업반 반장 김수길, 당세포위원장 정영식동무를 비롯한 작업반원들도 지난 3월 15일 열처리로에 고장이 생겼을 때 주저없이 뜨거운 로안에 곧대로 뛰여들어 전투를 벌려 3일이 걸린다던 보수를 4시간만에 끝냄으로써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만사람을 격동시키며 날을 따라 끊임없이 전해지고있는 각지 로동계급의 자랑찬 투쟁성과속에는 한몸이 그대로 사회주의조국을 떠받드는 주추돌이 될 입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헌신적인 투쟁을 벌린 수많은 위훈자들의 빛나는 자욱도 뚜렷이 새겨지었다.

언제나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탄부들을 앞장에서 이끌어온 력천탄광 6갱 무분당위원장이였던 김해성동무는 지난 6월 17일에도 새벽교대시간부터 채탄 2중대 막장에서 탄부들과 함께 긴장한 석탄생산전투를 벌리였다. 이날 그는 교대생산계획을 수행한 후 쉴수할수도 있었지만 탄부의 깨끗한 량심을 빛내이자고 호소하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대오의 앞장에서 애국탄증산전투를 힘있게 벌리였다.

명남탄광 2갱 굴진중대 1소대 당세포위원장이였던 한윤혁동무도 언제나 소대의 앞장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솔선 맡아하면서 대원들을 계속혁신, 계속전진에로 힘있게 이끌어 지난 5월 15일까지 상반년 굴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는 소대원들의 앙양된 투쟁기세를 더욱 분발시키며 기름진 탄맥을 마련하기 위한 쉴사전투를 벌리던중 지난 7월 6일 굴진막장에서 값높은 생을 마치였다.

금성뜨락또르공장 함유연직장 작업반장이였던 김혁윤동무는 지난 3월 21일 자기의 몫까지 합쳐 당앞에 걸의다진 80hp뜨락또르생산과제를 수행해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현장에서 순직하였다.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오직 하루빨리 당에 충정의 보고를 올릴 일념을 안고 불면한 몸을 강의한 의지로 지탱하면서 헌신적인 투쟁을 벌린 그의 모습은 공장 전체 로동계급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되였으며 지금도 그들을 끊임없는 혁신창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날이 갈수록 높이 발휘되고있는 각지 로동계급의 대중적영웅주의정신과 무비의 희생성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혁명의 전위부대의 단결된 위력과 필승의 기상을 온 세계에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명 춘 길

간 절 한 소 원 안 고

구장군도로시설관리소 도로관리작업반원들

구장군에 가면 수수한 작업복을 입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함이 없이 도로관리에 순절한 량심을 바치고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구장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인해들로 조직된 구장군도로시설관리소 도로관리작업반원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는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묵묵히 자기가 맡은 초소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구장군도시경영사업소(당시) 도로관리작업반원들의 소행을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을 높이 평가하시여 감사를 보내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날의 영광을 가슴에 안고 도로관리원들은 맡은 일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였다.

그러던 주체100(2011)년 5월 어느날 도로관리작업반원들은 또다시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였다. 끊임없는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들이 담당하여 관리하는 도로를 지나가신것이였다. 그들은 기쁨보다 자책감으로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어쩔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미흡한 점이 한두곳이 아닌 이 도로를 지나가셨단 말인가.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구봉령가족소대원들처럼 살리라.)

그들은 이런 충정의 맹세를 안고 가정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도로를 생각하며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성실한 땀을 바쳐갔다.

비가 억수로 퍼붓던 어느날이였다. 하늘을 쳐다보며 비가 멎기를 기다리던 작업반장 조원경동무는 급히 산기슭도로로 달려갔다. 아니세라 비물에 씻겨내린 흙이 도로를 한벌 덮어놓았다. 그는 지체없이 일손을 잡았다. 이때 리경옥, 박정성, 김정녀동무를 비롯한 작업반원들이 달려왔다.

치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맞물이들에 흙을 퍼담는 녀성들, 흙이 가득 담긴 맞물이를 들고 달리는 녀성들…

그들의 얼굴에서는 땀인지 비물인지 분간할수 없는것이 줄줄 흘러내리였다. 하지만 그들은 이 시각도 전선길에 계실 경애하는 원수님을 그리며 피해입은 도로를 반듯하게 정리해놓았다.

이런 뜨거운 심장을 지니고 사는 그들이였기에 비경지에 뎀싸리를 심고 가꾸어 비자루를 자체로 마련하였고 겨울이면 도로에 눈이 쌓일세라 쳐냈으며 가을철에는 나무잎이 떨어질세라 쓸고 또 쓸었다.

하기에 도로관리에 순절한 량심을 바쳐가고있는 그들을 두고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일대지게 뻗어나간 도로들에는 당중앙뜨락에 마음을 잇고 사는 도로관리작업반원들의 불타는 충정과 남다른 애국심이 깃들어있다고.

본사기자 김 창 길

불타는 애국심으로 새겨가는 헌신의 자욱

천리마구역수의방역소 소장 박춘옥동무와 종업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축산에서는 방역이자 곧 생산입니다.》

천리마구역수의방역소는 종업원이 불과 손에 꼽을 정도인 자그마한 단위이다. 이런 단위가 구역의 축산업발전에서 큰 몫을 맡아해제끼고있다. 수의방역사업에 필요한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 치료효과가 큰 30여가지의 수의치료약을 자체로 생산하여 리용, 80건에 달하는 발명 및 창의고안증서와 새 기술도입증을 받고 구제역 등을 철저히 막는데서 큰 성과를 이룩…

자기 힘을 굳게 믿고

30여년전 처녀시절 박춘옥동무가 당의 크나큰 신임에 의하여 수의방역소 소장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이곳 형편은 매우 어려웠다. 갖 조직된 수의방역소이다보니 번번한 건물도 없었고 종업원들의 기술실무수준도 높지 못하였다.

(과연 내가 수의방역소를 당에서 바라는대로 일떠세울수 있을가?)

깊은 생각에 잠긴 박춘옥동무의 머리속에는 문득 지나간 대학시절의 가슴뜨거운 나날이 삼삼히 떠올랐다. 석탄전선에 달려나가 사회정치활동을 활발히 벌리던 일이며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고 격정의 눈물을 흘리던 날들…

그날의 영광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박춘옥동무는 결심했다.

당의 사랑과 믿음에 높은 사업실적으로 보답하리라.

이런 불같은 열정안고 박춘옥동무는 첫걸음을 내짚었다.

당시 그에게는 빈주먹뿐이였다. 하지만 그는 자기 힘을 굳게 믿고 수의방역소건물을 꾸리는 것으로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힘겨운 전투가 시작되였다. 박춘옥동무가 필요한 자재들을 구하기 위해 밤길을 걸은적은 그 몇번인지 모른다.

결사적인 투쟁의 날과 달이 흐르는 속에 박춘옥동무와 종업원들은 드디여 자체의 힘으로 수의방역소건물을 번듯하게 꾸려놓았다.

자기들의 일터를 제힘으로 환하게 번모시킨 그들의 기쁨은 더없이 컸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였다.

모든것이 어설픈 수의방역소를 추켜세우자면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러나 박춘옥동무는 주저하지 않았다.

제일 큰 힘을 넣은것은 종업원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높이는 것이였다. 그는 모든 종업원들을 대학졸업생으로 키우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전문학교(당시)를 졸업한 종업원들이 대학에 통신생(당시)으로 입학하게 되였다. 사실 수의방역소에서 한명한명의 종업원이 차지하는 몫은 대단히 크다. 그러나 모르고서는 아무일도 할수 없다는것을 절감한 박춘옥동무였기에 힘들었어도 그들을 대학으로 떠밀었고 공부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무조건 보장해주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았다. 대학에 간 종업원들도 밤잠을 잊고 학습에 열중했다. 그리하여 종업원들모두가 대학졸업생, 3-4가지 일을 겸임할수 있는 다재다능한 기술의 소유자로 되였다.

박춘옥동무는 이렇게 준비된 자체의 력량에 의거하여 수의방역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추기 위한 사업을 하나하나 내밀어 놀라운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과학기술의 룡마타고 더 높이

일부 사람들은 수의방역소에서 집짐승을 수술의 방법으로 치료한다면 놀랄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고있는 이곳에 와보면 그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몇해전이였다. 그때 박춘옥동무가 고심하고있는 한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른 봄철에 부림소들이 가득나무잎을 뜯어먹고 중독되여 폐사되는 경우가 많았기때문이다. 종전의 치료방법으로는 별로 효과를 볼수 없었다.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던 박춘옥동무는 대담하게 위를 절개수술하기로 하였다.

사실 그때까지 누구도 이런 수술을 해본적이 없었다. 그러나 수의방역사업을 잘하여 집짐승의 폐사률을 낮출데 대한 당의 뜻을 되새길수록 기어이 해내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가 용솟음쳤다.

풍부한 기술과 경험을 소유한 우리 집단이 못해낼 일이 무엇이랴. 박춘옥동무와 종업원들은 튼튼한 배심으로 이 사업을 내밀었다. 모두의 관심속에 수술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몇달후부터는 부림소를 종전처럼 부릴수 있게 되였다. 성과에 토대하여 그들은 이 수술방법을 더욱 완성시켜 집짐승치료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게 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수의방역소에서 교카 상한 부림소를 회복시킨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수술방법들을 완성하여 집짐승치료에 기여한것은 박춘옥동무와 종업원들이 지닌 높은 기술실무수준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여기에 그들이 오늘도 몇몇이 자부하는 소중한 창조물이 있다. 이중으로 약병마개봉합을 할수 있는 포장기이다.

사실 수의방역소자체로 수의치료약을 생산하여 리용하던 과정에 박춘옥동무의 마음에 걸려 내려가지 않은것은 약병의 포장문제였다. 아무리 효능높은 수의치료약을 생산한다고 하여도 포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위생안전성을 담보할수 없었기때문이였다.

박춘옥동무는 수의방역소자체의 힘으로 이중으로 약병마개봉합을 할수 있는 포장기를 만들기로 하였다.

전문설비를 만드는 단위도 아닌 조건에서 이 사업은 헐치 않았다. 그러나 박춘옥동무와 종업원들은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이악하게 노력해온 자신들의 힘과 경험을 굳게 믿었다.

제작과정에 실패한적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럴수록 박춘옥동무와 종업원들은 용기백배하여 더욱 분발해나섰다. 이 포장기가 완성되던 날 그들은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자강이 제일이라는 철리를 더욱 뼈속깊이 새기게 되였다.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투쟁해온 과정에 수의방역소에서 거둔 성과들을 일일이 다 꼽자면 끝이 없다.

크지 않은 이 단위의 현실은 불타는 애국의 마음안고 과학기술에 의거한 자강력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갈 때 작은 단위도 큰일을 할수 있다는것을 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황 철 민

독자의 편지

뜨거운 그 진정 잊을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펜을 든것은 영예군인인 저의 가정을 친혈육의 정으로 도와주고있는 봉천군인민위원회 책임일군인 문형수동무의 진정에 대하여 전하고싶어서입니다.

제가 그와 인연을 맺은것은 10여년전부터입니다. 장추위가 한창이던 어느날 밤 저는 아픔을 이겨낼수가 없어 병원으로 떠났습니다. 힘들게 걸음을 옮기던 저는 길가에서 차를 타고가던 한 일군을 만나게 되였습니다. 알고보니 군인민위원회 책임일군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병원으로 후송하고 치료를 잘 받을수 있게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가정은 그와 혈연의 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몇해전 어느날 뜻밖의 폭우로 저의 집을 비롯한 여러 살림집들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때 그는 우리 집부터 먼저 찾아와 보고 피해복구대책을 세워주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명절날들을 비롯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갖가지 식료품과 생활용품들을 마련해가지고 저를 찾아와 군사복무시절의 그 정신으로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라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고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을 쉬임없이 걷고있는 이런 훌륭한 일군들이 있어 온 나라 대가정에 미덕의 향기가 진하게 풍기는것입니다.

봉천군 읍 97인민반 윤귀식

로씨야에 가는 우리 나라 정부경제대표단 출발

김영재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정부경제대표단이 로씨아의 울라지보스또크에서 진행되는 제3차 《동방경제연단—2017》에 참가하기 위하여 4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오룡철 대외경제성 부상과 알렉싼드르 미나예브 주조 로씨아련방 림시대리대사가 전송하였다.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대표단이 떠나갔다

리홍은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대표단이 4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자멸을 재촉하는 무분별한 불장난소동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자주권수호를 위한 우리의 정정당당한 조치를 악랄하게 걸고들면서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우리를 겨냥한 전쟁연습소동을 뻔질나게 벌려놓군 한다. 얼마전 남조선에서 감행된 침략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세계도처에서 각종 형식의 수많은 군사훈련들이 벌어지고있다. 하지만 미국과 괴뢰들이 남조선에서 벌려놓고있는 합동군사연습처럼 규모가 방대하고 도발적이며 위험천만한것은 찾아볼수 없다.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이 전쟁불장난소동들에 대해 매번 상투적으로 《방어적》이니, 《년례적》이니 하고 떠들지만 그 어떤 미사려구로써도 조선반도의 군사적대결과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우리 겨레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저들의 흉악한 정체를 가릴수 없다.

그 무슨 《북의 핵, 미싸일위협》에 대해 고아대며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를 걸고 반공화국제재압박에 열을 올리고있는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기어이 북침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지난 8월 남조선에서 수많은 침략무력이 투입된 가운데 북침선제타격각본인 《작전계획-5015》에 따라 감행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빼앗으려는 미국과 그 추구들의 무분별한 망동이 얼마나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원쑤들은 오산하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으로 우리를 눌러우려 하였지만 적들의 군사적도발망동은 오히려 우리 군대와 인민들로 하여금 자주권수호를 위한 전면대결전의지를 더욱 굳세게 다지게 하였다. 우리를 감히 위협해보려던 적들의 이번 전쟁불장난소동은 우리의 대미초강경공세로 죽탕이 되여 초라한 광대극으로 막을 내리고말았다.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는 우리 공화국의 승리의 전통이 이번에도 통쾌하게 과시되였다.

몇해전 미국과 괴뢰군부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계획을 공포하면서 《최첨단전략무기들이 총동원된다.》느니, 《력대 최대규모로 실시하여 북을 압박할 계획》이라느니 하고 허세를 부리였다. 그러면서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 핵전략폭격기, 스텔스전투기 등 미국의 《6대전략자산》을 모두 투입하여 《강력한 대북응징능력》을 보여주겠다고 너덜거리였다. 하지만 적들은 연습전야부터 개시된 우리의 드세찬 공세에 몰리워 전전긍긍하던 나머지 연습내용과 참가병력, 장비들에 대한 공개놀음마저 걷어치우는 등 보도관제를 쥐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지난해 봄의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때에도 마찬가지였다. 기세등등하여 달려들던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선군조선의 초강경공세에 부딪쳐 서리맞은 호박잎신세가 되고말았다. 우리 혁명무력은 적들의 핵전쟁연습개시소동에 소형화된 핵탄두의 전격공개 및 화무기병기화선언, 탄도로케트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으로 첫 타격을 가하였다. 적들의 로항상륙과 《북종심 및 평양전격작전》연습에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장비한 각종 류형의 탄도로케트들의 련속적인 발사훈련과 기습적인 상륙 및 반상륙방어연습으로, 무모한 《핵심무정밥타격》훈련에는 청와대와 서울시안의 반동통치기관들을 격멸소탕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선대렬함무대 장거리로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으로 대응함으로써 적들의 정수리를 불이 번쩍 나게 후려쳤다.

다종화된 우리의 핵타격수단들과 무장장비들의 위력시위가 슬슬필새없이 진행됨으로써 침략군이 기여든 남조선과 주변지역은 물론 미국본토까지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화하였다. 우리의 경고가 빈말이 아님을 실지로 확인한 미국은 꼬리를 사리면서 전쟁연습내용을 축소하여 보도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지어 미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미군부고위관계자들은 《북과의 전쟁은 2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릉가할것》이며 《북은 매일매일 직면하는 최대위협》, 《본능적으로 느끼는 실제적위협》이라고 우는소리를 하였다.

올해 봄에 감행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때에도 우리의 초강경공세에 혼비백산한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북의 경고가 이전과 매우 다르게 느껴진다.》, 《매우 불안하다.》고 비명을 터치면서 내부동요를 막는데 급급하였다. 바로 이것이 매번 무분별한 불장난소동을 벌려놓았다가 초절임이 되군 한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수치스러운 몰골이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극악무도한 핵위협공갈은 우리의 핵공격능력을 시시각각으로 강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핵전쟁연습을 해마다 끊임없이 이어오며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려고 피를 물고 날뛰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발악적망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원쑤격멸의 의지와 보복일념을 백배, 천배로 더해주고있다.

우리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대북선제타격》을 꾀하며 뻔질나게 벌려놓군 하는 북침합동군사연습들에 대처하여 우리 식의 앞선 선제타격을 가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태세를 전지하고있다. 우리의 다발적이며 련속적인 초강경공세에 질겁한 미국은 우리를 자극하는것을 피할 심산밑에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구체적인 내용들과 연습에 투입된 핵전략자산들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미국과 괴뢰들이 감행한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성격이 약화되는것이 아니며 미국이 북침흉계를 포기하는것은 더우기 아니다.

조선반도에서 갈수록 무모해지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핵전쟁도발책동을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분쇄내려는것이 우리의 단호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이번에 진행된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은 국가핵무력완성의 완결단계목표를 달성하는데서 매우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 온 세계를 뒤흔든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에는 우리의 평화를 불어뜯으려고 미친듯이 달려드는 승냥이들을 절대로 살려들수 없으며 적들이 감히 선불질을 한다면 침략자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안기고 지구상에서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영영 없애버리려는 천만군민의 억센 의지가 실려있다.

지금 미국은 나날이 더욱 강해지는 우리의 전략무력과 현실적인 핵공격능력앞에 절망에 빠져 허둥지둥하고있다. 파멸의 함정으로 거침없이 굴러떨어지는 미국의 가련한 몰골을 보며 세계는 선군조선이 틀어쥔 총대우에 정의가 있으며 행성의 평화도 우리 공화국이 마련한 강력한 핵억제력에 의해 담보된다는것을 절감하고있다.

정의의 핵보검이 폭제의 핵광기를 영원히 끝장내는것은 시간문제이다. 원쑤들은 천만대적도 단숨에 무찌를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필승의 신심이 하늘에 닿았고 섬멸의 용암이 분화구를 찾고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경거망동은 비참한 자멸을 재촉할뿐이다.

허 영 민

천년숙적과의 추악한 공모결탁

《북의 핵, 미싸일위협》이라는것을 요란히 떠들고있는 남조선괴뢰들이 얼마전 일본반동들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1년간 연장하기로 모의하였다. 이 매국협정에 대해 한때 《국익에 도움이 되겠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던 남조선집권자도 제입으로 내뱉은 그 말을 어디로 귀양보냈는지 삐쭉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다.

남조선당국의 매국반역적처사에 회심의 미소를 지은것은 일본반동들이다. 얼마전 일본방위상이라는자는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남조선은 물론 저들도 다른 의사가 없으므로 협정은 자동연장된다고 떠들어댔다.

괴뢰들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1년간 연장하기로 한것은 우리 민족의 천년숙적과 작당하여 동족을 해치려는 용납 못할 군사적공모결탁으로서 남조선 각계의 치솟는 분노와 항의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초불민심에 의해 출현하였다는 현 남조선당국이 박근혜매당과 다름없이 친일역적질에 열을 올리고있으니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남조선괴뢰들이 일본과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말하면 천하에 둘도 없는 친미친일역적인 박근혜가 남겨놓은 가장 대표적인 적폐의 하나이다.

박근혜역도는 집권후 민심을 외면하고 그 무슨 《미래지향적인 관계》니, 《돈독한 신뢰구축》이니 하는 개나발을 불어대면서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비롯한 일본의 치떨리는 과거죄악들을 묵인해주었을뿐아니라 나중에는 미국의 배후조종밑에 일본과의 반공화국압살공조를 더한층 강화할 심산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서슴없이 체결하였다.

박근혜매당이 선임자들이 감히 엄두도 못 내던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을 강행한것은 사실상 재침을 꿈꾸는 섬나라족속들에게 침략의 징검돌을 놓아준 천추에 용납 못할 친일매국행위이다. 남조선 각계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야말로 《대표적인 외교안보적폐》라고 하면서 그의 폐기를 요구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려온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 현 남조선당국은 인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굴욕적이며 매국반역적인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할 대신 그 무슨 《북의 핵, 미싸일위협》이라는것을 구실로 그것을 1년간 연장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이것이 박근혜매당의 추악한 사대매국행위를 답습하는 몰개빛 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현 남조선당국의 친일역적행위가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씻을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도 그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기는커녕 또다시 해외팽창의 길로 질주하는 일본반동들의 재침야욕을 부추기는 결과를 빚어내고있다는것은 더 론할 여지도 없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이 일본과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당장 폐기할것을 요구하는것은 그것이 일본《자위대》의 조선반도재침의 길을 열어주는 요인으로 되기때문이다.

일본은 패망한지 7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만고죄악을 꼬물만큼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야망실현에 광광연히 나서고있다. 남조선당국에 일본군성노예소녀상을 없애라고 생억지를 쓰는가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땅인 독도를 저들의 령토라고 우기며 그에 대해 력사교과서에까지 버젓이 올리고있다. 더우기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일본반동들이 미국과 야합하여 그 무슨 《북미싸일기지에 대한 선제공격》론까지 들고나오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는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일본반동들은 과거의 침략행위, 반인륜적범죄에 대해 털끝만 한 죄의식도 가책도 느끼지 않고있으며 오히려 지난 세기를 릉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려고 미친듯이 날치고있다.

그런데 남조선괴뢰들이 이에 대해 모르는척 하면서 오로지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압살할 흉계밑에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1년간 연장하기로 하였으니 이것을 과연 묵과할수 있겠는가.

남조선당국자들은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의 운명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일본과 같은 간교한 여우를 《우방》으로 개여올리며 재침의 길잡이노릇을 자청한다면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 비참한 멸망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조 남 수

조선에는 미국식허세가 통하지 않는다

여러 나라 정당, 단체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

여러 나라 정당, 단체가 8월 20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에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지지를 표시하였다.

에스빠냐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선언문에서 조선에 대한 미제의 가증되는 전쟁소동을 주의깊게 주시하고있다.

트럼프는 사회주의조선을 반대하는 전쟁폭언들을 서슴없이 줴쳐댐으로써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을 낱낱이 드러냈다.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우리는 조선인민을 지지하는 련대성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것이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조선인민이 거둔 모든 성과와 승리들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승리로도 된다.

조선의 핵보유가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기본담보로 된다고 확신하면서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미국에 의하여 조작된 불법무법의 반공화국《제재결의》를 단호히 규탄한다.

제국주의를 타도하라!

브라질공산주의제건동맹은 우리 인민에게 보내는 련대성편지에서 이렇게 밝혔다.

진보적인류는 조선에 대한 미제의 가증되는 전쟁소동을 주의깊게 주시하고있다.

트럼프는 사회주의조선을 반대하는 전쟁폭언들을 서슴없이 줴쳐댐으로써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을 낱낱이 드러냈다.

외국의 인사들 강조

주체조선의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극악무도한 반공화국《제재결의》를 조작해내고 히스테리적인 전쟁광기를 부려대는 미제와 적대세력들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있다.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헤쑤스 안토니오 까몰로스 에르난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메히꼬인민사회당은 미국이 조작해낸 대조선제재결의를 단호히 배격한다.

세상에서 핵시험을 제일 많이 하고 때없이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발사하고있는 미국의 핵패권은 전혀 문제시되지 않고 오히려 그에 대처하여 자위적핵억제력을 강화해나가는 조선에 제재를 가하는것이야말로 이중기준의 극치이다.

이번 《제재결의》는 유엔안보리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기구가 아니라 미국의 심부름군, 거수기에 불과한 유명무실한 기구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보여주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제재와 략탈을 합법화하는 부당한 결의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부정의가 이 세상에 그대로 존재하는 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은 계속될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핵전쟁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조선의 핵무력강화조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로씨야련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율라지미르 이싸꼬브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자주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조선인민이 단행한 대륙간탄도로케트의 시험발사는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이다.

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케트들은 그 하나하나가 모두 미국의 정수리를 후려갈기는 무자비한 철추이다.

이제는 미국이 과연 누구와 상대하고있는가를 잘 알 때가 되였다.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로케트까지 보유한 군사강국인 조선에는 미국식허세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조선의 핵무력은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끝장내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정의의 보검이다.

【조선중앙통신】

애 국 위 업 의 한 길 에 서

민족교육사업에 모든 힘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총련에서는 민족교육사업에서 주체를 세워 조국애와 민족성을 심어주는데 주력하며 지식경제시대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여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과시하여야 합니다.》

지난 3월말 총련 도꾜조선제1초중급학교에서는 총련일군들의 모임이 진행되였다.

총련중앙의 책임일군들과 총련 도꾜도본부 일군들 등이 참석한 모임에서는 애국사업 특히 민족교육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한 문제들이 진지하게 토의되였다.

올해초부터 총련 도꾜도본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해축전에서 제시하신 과업관철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할 각오를 안고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리여왔다. 모든 지부들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열풍이 세차게 불아쳤다. 결과 총련 도꾜조선제1초중급학교에서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학생, 유치반원아들을 받아들인것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이 학교로 말하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50여년전 총련에 보내주신 첫 민족학기들을 받아안은 뜻깊은 학교이며 우리 학교들가운데서 제일먼저 첨근꼬리트교사를 번듯하게 일떠세운 자랑높은 단위이다.

모임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60년세월 재일동포자녀들에게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에 깃들어있는 숭고한 뜻을 잊지 않고 올해 민족교육사업을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상과 민족교육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전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교육에서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자.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경애하는 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유능한 민족인재, 참다운 애국자들로 더 잘 키워나가자. 이런 일념안고 돌아간 총련일군들은 지부경영운동과 모범분회창조운동을 민족교육고수강화를 위한 투쟁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나가고있다.

거세차게 타오르는 애국운동의 불길속에서 많은 기층조직들이 더욱 생기발랄한 조직으로 강화발전되고있다.

미더운 길잡이가 되여

오까야마현에는 새 세대 동포녀성들로 무어진 무용소조 《길잡이》가 있다. 그 명칭에는 아름다운 조선무용을 통해 우리 민족문화의 찬란한 빛을 일본땅에 뿌려나가고 동포들을 애국위업의 한길로 이끌겠다는 의미가 담겨져있다. 30-40대의 가정부인들과 20대의 조청원들, 총련 오까야마조선초중급학교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망라된 《길잡이》는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성과 민족교육의 우월성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동포들의 애국열의를 북돋아주는데 크게 이바지해왔다. 그들의 작품마다에는 몸은 비록 이역땅에 있어도 민족의 향기를 고이 간직한 조선의 꽃으로 영원히 피여있으려는 동포녀성들의 순결한 마음이 그대로 어려있다. 우리 장단 넘치는 곳에 웃음가득, 희망가득 넘쳐난다는것이 무용소조원들의 확신이다.

《길잡이》는 2년에 한번씩 우리 동포들과 일본인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공연을 진행하군 하는데 일명 《학교를 위한 공연》으로 불리운다. 공연수익금이 전부 우리 학교의 보수와 개건, 통학버스구입 등에 돌려지기때문이다.

얼마전에도 《길잡이》는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리였다. 그 어느것이나 다 높은 예술적기량과 풍부한 형상력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관람자들은 우리 장단, 우리 음악에 맞추어 춤추는 출연자들이 정말 사랑스럽다고 흥분된 심정을 터놓았다. 다른 지역에서 공연을 관람하려고 온 동포들도 작고 외진 오까야마지역에 이토록 훌륭한 예술소조가 있는줄 미처 몰랐다고 하면서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애국애족의 열정이 흐르고 고유한 우리의 민족성이 흘러넘치는 《길잡이》의 공연은 동포들에게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애국위업의 밝은 앞날에 대한 크나큰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본사기자

북침전쟁사환군들이 들쓴 날벼락

하늘이 만든 화는 피할수 있어도 제가 만든 화는 피할수 없다는 말이 있다.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미국상전의 북침전쟁도발책동에 맹목적으로 추종하여 동족을 해치려고 발광하는 괴뢰호전광들이 바로 피할수 없는 화를 불러오는 얼간망둥이들이다.

최근 북침전쟁연습에 미쳐날뛰던 남조선괴뢰군의 한 부대에서 일어난 엄중한 사고도 그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

얼마전 괴뢰군부호전광들은 그 누구의 《위협》에 대처하여 자체로 개발하였다고 하는 《K-9》포에 대한 사격훈련놀음을 벌려놓았다. 그런데 이날 불장난소동을 벌려놓던 포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여 2명의 사병이 죽고 5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빚어졌다. 그야말로 괴뢰호전광들에게 내려진 날벼락인것이다.

《K-9》포로 말하면 괴뢰들이 그 무슨 《명품무기》니 뭐니 하고 요란하게 광고하며 해외에 수출까지 하겠다고 자랑하던것이다. 그런 장비에서 큰 사고가 나 사상자들이 발생했으니 괴뢰군부가 얼마나 당황했겠는가.

바빠난 괴뢰들은 사고조사단을 조직한다, 사고의 원인에 대해 해명한다 하며 분주탕을 피워대고있다. 하지만 사고조사결과는 뻔하다는것이 남조선언론들의 평가이다. 돈벌이에 환장한 괴뢰군부상층과 이자들과 결탁된 군수산업계의 협잡행위의 결과이라는것이다.

남조선에서 《K-9》포가 성능과 안전성측면에서 결함들이 많아 고장이 잦고 사고를 련발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고 한다. 그런데 사고가 날때마다 조사를 한 결과는 모두 한결같았다. 포자체가 결함이 있는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불량부속품을 사용했기때문이다.

군수품납입업체들이 괴뢰군부를 끼고 불량품들을 팔아먹으면서 돈주머니를 채우고있다는것은 이미 널리 폭로된 사실이다. 《K-9》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2009년 《K-9》포의 부속품을 납입하는 업체의 협잡사건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2013년에도 군수품납입업체들이 《K-9》포용으로 불량부속품을 팔아먹은 사건이 적발되였다. 이번의 불상사도 돈만 벌수 있다면 그 무슨짓도 서슴지 않는 괴뢰군부의 《군피아》들과 이것들을 등에 업고 온갖 협잡행위를 일삼는 군수품납입업자들에 의해 일어난것이다.

하기야 군부와 군수산업계의 부정부패행위에 깊숙이 가담한것으로 하여 장관벼거지를 쓰기 전부터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던 송영무국도와 같은 특등협잡배가 괴뢰군부의 수장자리를 차지하고있으니 그들한 일은 별로 놀라운것도 아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미국상전의 북침전쟁대로밥노릇을 하면서 부정부패로 망해가는 남조선괴뢰군부의 실상을 다시한번 보여준 필연적인 사고이다. 남조선괴뢰들이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북침전쟁도발책동에 계속 발광적으로 매달리는 한 그런 불상사는 언제든지 계속 일어나게 되여있다.

그런즉 민족을 반역하며 겨레의 미래우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괴뢰호전광들에게 차례질것이란 처절한 개죽음뿐이다.

리 홍 철

당국의 《싸드》배치철회를 강력히 요구

최근 남조선에서 당국의 《싸드》배치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더욱 격렬하게 전개되고있다.

《싸드》배치지주변지역에 사는 경상북도 성주군, 김천시의 주민들과 원불교인들 그리고 민주로총, 국민주권실천 적폐청산대전운동본부를 비롯한 각계 단체들은 《싸드》배치를 박근혜역도의 악폐의 하나, 민족불행의 화근으로 단죄하며 그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특히 배치지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싸드》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양보도 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배치지로 들어가는 괴뢰군자동차들의 앞길을 결사적으로 막으며 항의하였다.

7월 13일 하루동안에만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를 비롯한 각지에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싸드》배치책동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중적항의투쟁이 일제히 진개되였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련대는 7월 27일부터 8월 26일까지를 반미반전투쟁기간으로 선포하고 《싸드》배치와 잘못된 《대북정책》의 철회를 위한 투쟁을 강도높게 벌리였다.

남조선 각계층의 투쟁은 당국이 《싸드》배치를 결정한 박근혜역적패당의 죄행을 덮어버리고 발사대추가배치에 발악적으로 매달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더욱 고조되였다.

200여개의 단체들이 망라된 《주권회복과 한반도평화실현 8.15범국민평화행동 추진위원회》는 8월 15일에 가진 범국민집회에서 《싸드》배치철회를 주요요구조건의 하나로 제시하며 당국의 대미굴종행위를 성토하였다.

인터네트신문 《민족일보》가 환경영향평가결과공개의 부당성을 까밝히며 민중의 요구대로 《싸드》를 즉시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한것을 비롯하여 언론들도 남조선당국의 부당한 조치를 반대하는 여론전을 폈다.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은 원불교인들과 함께 《싸드배치를 전제로 한 정부발표는 믿을수 없다.》, 《싸드 세부계획에 대한 공개없이 고작 6분간 측정하고 안전성을 강변한다면 누가 신뢰할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배치지로 통하는 도로와 다리에서 추가배치와 기초공사에 필요한 건설장비반입을 결사적으로 막아나섰다.

【조선중앙통신】

철저히 규명해야 할 광주대학살만행의 진상

최근 남조선에서 광주인민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치떨리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한 미국과 괴뢰군부깡패들의 천인공노할 특대형범죄행위를 고발하는 새로운 자료들과 증언들이 공개되여 각계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광주인민봉기의 불길이 타오르던 1980년 5월 수원에 있는 괴뢰공군부대에서 비행사로 근무하였던 한 주민은 당시 군부가 대형폭탄을 탑재한 전투기까지 동원하여 항쟁을 진압하려 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는 봉기가 일어난 때로부터 3일정도 지난 어느날 군부가 자기를 비롯한 여러 전투기조종사들에게 고성능기관포와 지상공격용폭탄을 탑재하는 등 완전무장을 갖추고 출격대기하라는 지시를 떨구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광주를 목적하기 위한것이였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대해 전직 괴뢰군부인물들은 출격대기를 한것은 맞지만 그것은 《북에 대비하기 위한것》이였다느니 뭐니 하며 어떻게 하나 저들의 범죄사실을 감추려 하였다. 하지만 당시 광주, 성남, 김해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괴뢰공군비행대들에서 전투기조종사로 근무한 사람들도 바로 그 시기에 저들이 완전무장을 갖춘 공수특전대와 함께 비상대기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리하여 미국과 괴뢰군부깡패들이 발톱까지 무장한 《계엄군》을 항쟁용사들을 대상으로 한 살륙전에 내몬것으로도 모자라 광주에 대한 공습계획까지 작성하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미친듯이 날뛰였다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였다.

이뿐이 아니다. 당시 괴뢰륙군 61항공단과 31항공단의 직승기조종사들은 저들이 군부의 명령에 따라 각기 기관총과 실탄 2 000발을 싣고 광주로 출동했다고 진술하였다. 어느 한 직승기조종사는 자기가 전남대학교상공에서 최루가스를 뿌렸다고 고백하였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얼마전 광주대학살당시 《계엄군》의 지휘본부역할을 수행한 어느 한 괴뢰군부대가 사병들에게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격을 가할것을 명령하고 총탄들을 공급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문건을 공개하였다.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이 봉기자들과 시민들을 향해 무려 51만발이 넘는 엄청난 량의 각종 실탄을 사용했다는 괴뢰군부의 기록문서도 처음으로 발견되였다.

광주의 봉기자들과 시민들에 대한 괴뢰군부깡패들의 몸서리치는 살륙작전의 일단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계속 드러나는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에서 커다란 물의가 일어나고있는 속에 각계 시민사회단체들과 인민들은 대학살만행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고 살인주모자들을 엄벌에 처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광주인민봉기는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군부파쑈독재통치를 끝장내고 자주, 민주, 통일의 새 아침을 기어이 안아오려는 남조선인민들의 강렬한 지향과 의지의 분출이였다.

광주항쟁용사들의 투쟁열기에 질겁한 미제와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은 땅크와 장갑차, 비행기, 미싸일을 비롯한 각종 무장장비들을 동원하여 봉기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진압에 광분하면서 사상 류례없는 대학살만행으로 광주를 피바다에 잠그는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와 부추김밑에 감행된 광주대학살만행은 참으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야만적인것으로서 세인을 경악케 하였다.

력사에 전무후무한 치떨리는 인간대살륙만행을 목격한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미국을 광주대학살만행의 원흉으로, 전두환일당을 동족의 피로 두손을 물들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들로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대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그러나 광주대학살만행을 직접 조직하고 집행한 미국과 전두환일당은 저들이 저지른 죄행을 갖은 궤변으로 정당화해나섰다. 심지어 전두환역도는 그 무슨 《회고록》이라는데서 봉기자들을 향해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느니, 자기는 오히려 《5.18의 희생자》라느니 하는 뻔뻔스러운 너두리를 늘어놓았다. 나중에는 《계엄군》의 살인만행을 목격하고 증언한 목사를 가리켜 《목사가 아니라 가면을 쓴 악마》라고 힐뜯는 망동까지 부리여 남조선 각계의 격분을 자아냈다.

하지만 이번에 광주대학살만행과 관련하여 새롭게 드러난 자료들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일떠선 광주의 의로운 항쟁용사들과 무고한 시민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한 미국과 전두환군사깡패무리의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을 명백히 립증해주고있다.

지금 격분한 남조선의 각계단체들과 인민들은 광주대학살만행과 관련한 진상조사가 전투기들의 출격대기나 직승기들의 기총사격과 관련된 조사에 국한되여서는 안되며 당시 괴뢰군부를 누가 움직이였으며 누가 시민들을 향해 사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는가에 중심을 두고 진행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국이 민심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특히 그들은 현재 군부가 조사하겠다고 하는 광주대학살만행당시의 문건들은 전두환군부에 유리하게 작성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사건에 대한 옳바른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절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라고 경고해나서고있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고 해도 력사에 류례없는 인민대학살참극인 광주대학살만행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범죄의 장본인들은 준엄한 징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파쑈독재의 부활을 결코 바라지 않으며 새 정치, 새 생활을 지향하여 떨쳐나서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본사기자 리 성 호

ㄱ-71140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및 우편물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6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6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